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3년 10월호

리아호나

성전에 가는 십 대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준비하도록 도우십시오, 18쪽

나의 선교 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다, 42쪽

감독은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58쪽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불량배까지도, 68쪽

"그러나 현재의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앞에 빛을 비추시어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0쪽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20

메시지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구조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창조주

특집기사

12 여러분의 역할을 잘 해내십시오
쿠엔틴 엘 쿡 장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익명이 더 쉬워진 우리 시대에 가면을 쓰지 않고 신앙에 충실하는 것에 관련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18 청소년과 성전 성약
게리 카터, 수잔 카터 부부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가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20 우리의 위대한 선교사 유산
라르네 포터 가운트, 린다 데커 로페즈
선교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삶을 살도록 도우려는 소망으로 봉사합니다.

26 싸울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십시오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단순한 원리가 인생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30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주님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곧 그분의 구원 사업에 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을 뜻한다.

34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매튜 디 플리트
복음은 한 남자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그의 가족을 뭉치게 했다.

교회 본부 기사

8 10월 연차 대회 노트: 연차 대회 아이디어
티나 스펜서

9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르치기:
신체 및 정서적 건강

10 교회 소식

38 후기 성도의 소리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욕설
알 발 존슨

표지
앞: 사진 삽화, 코디 벨. 뒤: 사진 삽화, 코디 벨
앞 표지 안쪽 사진 삽화: © iStockphoto/Thinkstock

청년 성인

42 어떻게 성공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로렌 뱅거터 와일드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으므로, 나는 낙담하고 말았다. 나는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찾아야만 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과일을 나눠 줌.

청소년

46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더 나은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다섯 가지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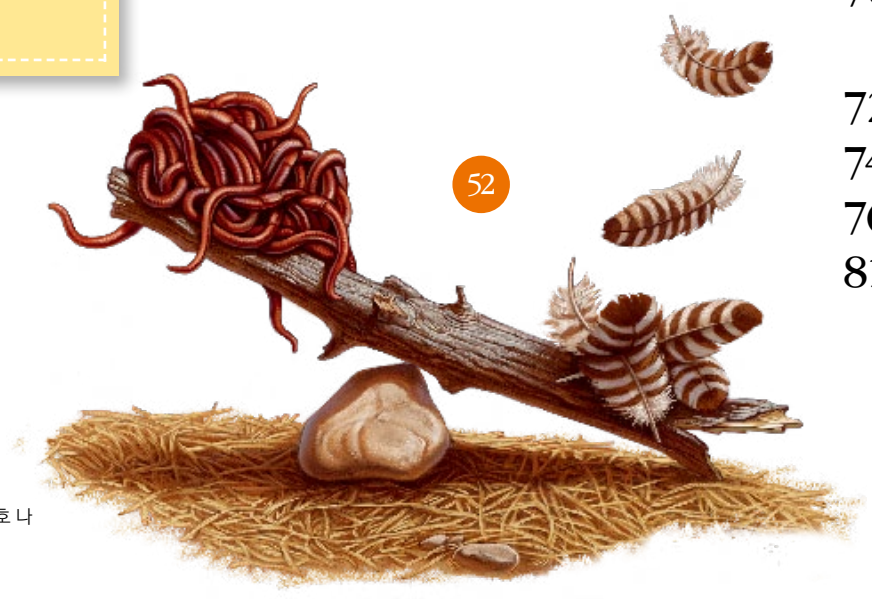
51 그냥 웃으면서 거절하십시오
하젤 마리 티뷸
회사 사장님에게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5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강하고 건강하며 똑똑해지십시오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
운동화를 신고 시작하십시오!

54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멀리사 젠테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은 고급물리학처럼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디디기만 하면 그 과정은 시작됩니다.

56 질의응답
"일부 교회 회원들은 왜 표준대로 생활하지 않느냐고 묻는 비회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58 감독님께 무엇을, 왜 고백해야 합니까?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회개란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왜 감독님에게도 고백해야 하는 거죠?



어린이

61 구주를 맞아들이세요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구주는 여러분의 삶에 초대받기를 기다리신다!

62 새내기 집사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벤지는 성찬을 전달하는 일이 무척 긴장되었다. 벤지는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64 유적지 탐방: 윈터쿼터스에서의 기다림
제니퍼 메디

66 성도들이 윈터쿼터스에 멈추다
아리 반 데 그라프

67 특별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68 바이올렛 도와주기
샬롯 매이 쉐퍼드
바이올렛은 에머에게 늘 못되게 굴었다. 에머는 왜 바이올렛에게 잘 대해 주어야 하는가?

70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72 뉴욕시티에 사는 카밀

74 우리들 이야기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81 선지자 초상화: 데이비드 오 맥케이

2013년 10월호 제50권, 제10호
리아호나 10790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엠 바운,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펄 골든 이세, 앤서니 디 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멀리사 젠테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전 배렛,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톤, 민디 라예 프리드만, 로리 풀러, 게리 에이치 가프,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마이클 알 모리스, 리차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놋슨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케리 린 시 헤린,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버뎃,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타테 러퍼티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위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63호, 제50권, 제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거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샬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October 2013 Vol. 37 No. 10. LIAHONA (USPS 311-480) Korean (ISSN 1521-479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사진 삽화: 크레이그 디어몬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 46쪽: 가족과 함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의 다섯 가지 특징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그런 후 그 원리들을 실천하려고 힘쓴다. 가족과 함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 가족들에게 한 사람씩 돌아가며 선교사 토론 중 가르치는 부분을 짧게 실행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구도자 역할을 하게 한다. 선교 사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고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설명한 특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강하고 건강하며 똑똑해지십시오", 52쪽: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의 기사를 살펴본 후, 식구들이 함께 신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도 있다. 활동은 식구들의 나이와 능력에 맞추어야 한다.(예를 들어, 큰 아이에게 동생들이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생활방식에서 얻는 유익을 온 가족이 함께 토론한다. 우리 몸을 돌보라는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주신 권고를 따르기 위해 온 가족이 계속 함께 노력할 방안을 계획해도 좋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감독, *58*
개척자, *64*
건강, *9, 52*
계시, *67*
고결성, *12, 51*
고백, *58*
교회 역사, *64, 66*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54*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42, 46, 54*
데이비드 오 맥케이, *81*
모범, *12, 56*
목표, *12, 54*
선교 사업, *20, 30, 40, 42, 46, 61, 70, 72*
선지자, *67*
성신, *41, 46*
성전, *18, 34*
신권, *62, 76*
어린이, *76*
언어, *80*
역경, *42, 64, 68*
예수 그리스도, *7, 76*
욕설*(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80*
용서, *58, 68,*
우정, *39, 40, 72*
유혹, *51, 80*
자애, *4, 20, 34, 68*
준비, *26*
지혜의 말씀, *9, 51, 52*
창조, *7*
판단함, *56*
평화, *34*
표준, *56, 80*
활동 촉진, *4, 30, 38*
회개, *58*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구조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활동의 길에서 벗어난 형제 자매들을 구조해야 하는 일은 후기 성도에게 영원한 중요성을 띱니다. 한때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구조하는 데에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나이 드신 분, 배우자와 사별한 분, 병드신 분들 가운데 잃어버린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모두 마르고 황량한 고독의 광야에 고립되어 있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젊음이 떠나가고, 건강이 쇠퇴하며, 활력이 떨어지고, 희망의 빛마저 희미하게 깜박일 때, 그분들은 도움의 손길과 동정 어린 마음으로 전해지는 구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조가 필요한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로 허덕이고 있으며,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나 무관심, 또는 무시 속에서 헤맵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분들은 교회 활동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교회의 활동 회원인 우리 마음속에서 구조하고 구원해야겠다는 소망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분들은 거의 틀림없이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길을 알려 줄 사람

오래전에 저는 교회에서 벗어난 한 형제님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수많은 우리 회원들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비활동이 되었는지를 설명한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지금은 가진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불행하며 모든 것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음은 제 삶에서 떠나갔지만, 마음에서까지 떠난 것은 아닙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와 같은 잃어버린 후기 성도들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저에게 길을 알려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두려움을 없애 주고, 간증을 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따금 듭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세계적인 미술관인 영국 런던의 유명한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에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가 1831년에 그린 걸작이 예쁜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검은 구름이 짙게 깔려 있고 위험과 죽음을 예고하는 사나운 바다의 파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좌초된 배에서 나오는 불빛이 멀리서 가물거립니다. 앞쪽에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높이 치솟아 있는 큰 구명선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배가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갈세라 힘껏 노를 젓습니다. 해변에는 한 아내와 두 아이가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럽게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림의 제목을 짧게 줄여서 *구조하라*[1]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소년 소녀들은 자신이 배처럼 좌초되어 파멸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과 가족의 안락함을 뒤로한 채, 구명선을 이끌고 구조하러 가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임무는 감당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으므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역을 베풀던 시기에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2]라고 말씀하시며 그물을 버려 두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대열에 동참하여 무엇이든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조난 신호(파란 불빛)를 보내는 좌초된 배를 향해 맨비 장비를 싣고 가는 구명선,
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 ©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WWW.VANDAIMAGES.COM

우리에게는 안전한 활동에서 멀어진 분들을 구조하기 위해 손을 내밀며, 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데려와 주님의 말씀을 취하고 성령의 동반을 누리게 하여 "이제부터 ……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3] 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

저는 다시 활동화되고 태도와 습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영원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이를 성취할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었기에 돌아옵니다. 활동이 미진한 분들이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훌륭한 것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평범한 상태로 오래 안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그 밖의 사람들은 친족이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구주의 권고를 따르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며[4] 꿈을 이루고 포부를 실현하도록 도와주었기에 돌아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촉매가 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로 볼 때 터너의 그림 속에 나오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좌초되어 있는 인물들은 구명선을 이끌 분들의 구조를 기다리는, 활동이 미진한 많은 회원과 흡사합니다. 이들은 마음으로 도움을 갈망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손길이 닿게 해 달라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활동이 미진한 회원들을 구조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며, 우리와 함께 완전한 우정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이 드신 분, 배우자를 잃은 분, 병이 든 분, 장애가 있는 분, 활동이 미진한 분,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주위의 잃어버린 분들을 구조하도록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동정 어린 마음과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며,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는 동안 다른 이들을 도울 때 깃드는 풍성한 만족감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

주

1. 그림의 실제 제목은 *조난 신호(파란 불빛)를 보내는 좌초된 배를 향해 맨비 장비를 싣고 가는 구명선*이다.
2. 마태복음 4:19.
3. 에베소서 2:19.
4. 마태복음 22:39 참조.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인 중에 교회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정의 밤이나 식사에 초대하는 것과 같이 사랑을 보일 방법을 토론할 수도 있다.

나의 선물 젠

조시 에스 킬팍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이어 나쁜 선택을 했다. 그런 선택은 심각한 결말과 불행을 초래했기에 나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다시 개학하자 내가 돌아오기를 고대한 불량한 친구들을 피하려고 나는 샤워실이나 빈 복도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런 외로움은 난생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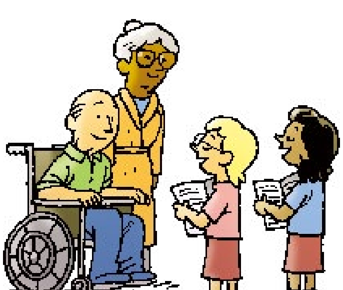
그러던 중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젠을 보내 주신 것이다. 젠은 내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법이 없었으며, 대신 옳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젠이 학교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계속 경전을 읽고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졸업 때까지, 나는 변화하겠다는 그 다짐을 스스로 입증했다.

만일 젠이 관심을 보여 주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오늘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녀 없이도 내 원칙에 따라 생활할 수 있었을까? 다행히도 온 마음으로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젠이 있었기에,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영영 알 수 없게 되었다.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구조하는 방법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나이 드신 분, 배우자를 잃은 분, 병이 든 분, 활동이 미진한 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 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밑에 있는 줄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쓰세요. 그림에서 단서를 찾아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무엇을 나눌지 알 수 있게 간구한다.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 창조주

구주의 여러 사명에 관한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물 중 첫 번째 기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 창조하[셨다.]"(제3니파이 9:15)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신권 권능으로 그 일을 하셨다.(모세서 1:33 참조)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현명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 우리가 시험의 시간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해 보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려야 합니다."[1] 우리가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 함께 살기에 합당하게 된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창조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에게 있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에 비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2]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의미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성구에서

요한복음 1:3; 히브리서 1:1~2; 모사이야서 3:8; 모세서 1:30~33, 35~39; 아브라함서 3:24~25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이라는 경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91쪽.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여러분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0쪽.
3.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 171쪽.
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71쪽.
5.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69쪽.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우리의 신성한 속성을 이해하려 힘쓰는 것은 어떻게 구주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는가?

2.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보일 수 있는가?

그리스도 사진: 데이비드 나스틀; 배경: 헤메라/씽크스톡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모세서 2:26~27 참조), 신성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자신]의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3]을 살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고무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자매들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여 자기의 신성한 잠재력에 걸맞게 생활하도록 가르침을 받아 왔다. "자매들은 자신들이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 능력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할 때, 거룩한 여성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된다."[4]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 주신 연민을 행동으로 옮길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5]

연차 대회 아이디어

티나 스펜서

"저녁 식사에 누가 오실까요?"

매번 연차 대회가 시작되기 보름 전에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에 누가 오실까요?"라고 적힌 표지판을 내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교회 잡지 중 지난 연차 대회 특집호에서 우리의 선지자, 선견자 및 계시자의 최근 사진을 표지판에 붙인다.

나는 준비 작업으로 우리가 그날 밤에 영접할 선지자에 대해 조사한다. 가끔은 내가 알아낸 것들을 나타내는 물건을 집 주변에서 찾아 와서 접시에 올려 놓기도 한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내가 알아낸 것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면 모두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히려고 애쓴다. 어떨 때는 그 선지자가 지난 연차 대회에서 말씀한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사랑하는 우리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해 아이들이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이 단순한 활동을 하면서 그 훌륭한 분들에 대한 나의 사랑과 지식은 점점 커져 갔다.

대회 말씀은 가족 수대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과 부인인 캐시 앤더슨 자매님이 우리 스테이크 대회에 오셨을 때, 앤더슨 자매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다. 자매님은 프랑스에서 살던 시절에 연차 대회 말씀을 매우 어린 자녀까지 포함하여 자녀들 수대로 복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무척 놀라셨다고 한다. 그때 자매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 '우리 가족이 선지자의 말씀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은 나는 우리 가족에게 각자 연차 대회 말씀을 한 부씩 갖게 했다. 딸들은 무척 좋아했다. 우리는 가정의 밤과 경전 공부를 하는 동안 그 말씀들을 활용했다. 딸아이가 자신의 잡지로 대회 말씀을 읽으며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최근에 침례를 받은 다른 딸은 자기와 일대일로 말씀을 읽자고 나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대회와 관련된 과제

나는 상호부조회 공과를 하면서 자매들에게 각자 지난 대회 말씀을 다시 읽어 보도록 권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다시 읽어 보는 자매들도 있고, 인터넷으로 대회를 시청하는 자매들도 있다. 다가오는 대회를 위해 더 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는 자매들도 더러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워싱턴에 산다.

사진 삽화: 오브리 스타빈 © IRI

신체 및 정서적 건강

어떤 청소년에게는 신체 단련에 관한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고 자신감을 갖는 데 주요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신체적, 정서적 건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선교 사업 준비에서 종종 미진한 면이 되기도 한다. 이번 호 52~53쪽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는 우리 몸을 돌보는 일이 어떻게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게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오초아 장로는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지혜의 말씀(교리와 성약 89편 참조)을 지키고 실천할 것을 상기해 주었다. 자녀가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관한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도록 돕는다면, 그들은 자신감을 키우고 미래의 봉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오초아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더욱더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적, 육체적, 영적인 면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한 제언

- 오초아 장로의 기사를 함께 읽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신체 단련 목표를 정하여 가족 운동 계획을 세운다.
- 여러분의 십 대 자녀와 함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5~27쪽)에 나오는 신체 및 정서적 건강 부분을 읽는다.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토론한다.
- "성도들아 큰 시험이 닥쳐와도"(*찬송가* 88장)를 함께 부르고 부활이 육신의 중요성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본 기사에 나오는 성구들을 공부하고 그 내용이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토론한다.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제언

- 자녀에게 성전 사진을 보여 준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은 "성령의 전"(고린도전서 6:19)이라고 가르친 것은 무엇을 뜻하며,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자녀가 좋아할 만한 건전한 가족 여가 활동을 목록으로 만든다. 그런 다음 이런 활동을 어떻게 가정생활의 일부로 만들 것인지 계획한다.
- 화 또는 슬픔을 비롯한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방법을 토론한다. "우리 모두 다 같이"(*어린이 노래책*, 125쪽), "주 예수를 닮으려고"(*어린이 노래책*, 40쪽), 또는 감정 및 옳은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노래를 부른다. ■

관련 성구

잠언 16:32
다니엘 1:3~20
누가복음 21:19
로마서 12:1~2
고린도전서 6:19~20
데살로니가전서 5:14
앨마서 38:12; 53:20
교리와 성약 88:15; 89편

삽화: 타이아 몰리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회원들은 신권 권세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 모그넥
교회 소식

교회는 회원들이 요청하면 신권 권세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권 권세선은 신권 성임 과정을 순차로 표시하여 교회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마지막에는 구주께로 연결된다.

칠십인 직분에 성임받은 신권 소유자가 회원의 개인적인 신권 권세선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칠십인 직분을 위해 따로 신권 권세선을 보관하지는 않는다. 또한 성임된 감독 및 축복사의 신권 권세선은 그들의 대제사 성임 기록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오직 멜기세덱 신권 권세선만을 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아론 신권 권세선은 얻을 수 없다. 회원들은 오직 자기 자신, 함께 살고 있는 자녀 또는 현재 청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 멜기세덱 신권 권세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록은 공식적인 교회 기록은 아니다.

자신의 신권 권세선을 요청하고 싶다면 완전한 법적인 이름으로 등록된 성명, 생년월일, 회원 기록 번호(성전 추천서에 나와 있으며 와드 서기에게서도 얻을 수 있음),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을 장로 또는 대제사 직분에 성임한 개인의 이름, 반송 주소 및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보내야 한다.

다음 주소로 요청한다.

Priesthood Line of Authority
Global Service Center
120 North 200 West
Salt Lake City, Utah 84103-1514
팩스: 1-801-240-6816
전화: 1-800-453-3860, 내선 2-3500
이메일: 제목에 "PLA"라고 작성하여 lineofauthority@ldschurch.org로 보낸다. 양식을 받으면 기입하여 답장을 보낸다.(제목에 "PLA"를 포함하는 모든 메시지에 자동으로 답장을 보내고 있다.) ■

신이사도를 성임하시는 그리스도, 해리 앤더슨 © IRI

성임 관련 기록인 신권 권세선은 구주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부채 무용단이 몽골의 교회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공연에서 숫자 "20"을 만들고 있다.

사진 제공: 몽골 울란바토르 선교부

몽골 지역의 교회 20주년을 기념하며

2013년 4월 15일 월요일, 300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자이상 힐에 모여 몽골 지역의 교회 20주년을 기념했다. 5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으며, 회원들은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가 1993년에 복음 전파를 위해 몽골을 헌납했을 때 했던 말씀을 녹화 자료로 들었다.

1993년에 맥스웰 장로와 함께 몽골에 왔던 전 아시아 지역 회장단 일원인 타이 곽 유엔 장로는 "주님의 포도원에 속한 이곳에서 그분의 손길이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았다.

한 주 내내 다양한 행사가 벌어져 이날을 기념했다. 선교부 친목 모임이 열려 200명의 귀환 선교사가 모이기도 했다. 몽골 회원 중 귀환 선교사는 1,000명 이상이 되는데, 이는 몽골 회원 10명 가운데 1명 꼴로 봉사한 셈이 된다. 금요일 저녁에는 몽골 전역에서 침례식이 열려 그날 하루 동안 24명이 침례를 받았다. 최근 본부 청녀 회장단에서 해임된 메리 엔 쿡 자매는 청녀 영적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으며, 가족 역사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패밀리 트리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했다. 이 문화 축제는 몽골의 풍부한 문화와 수많은 교회 회원들의 재능을 마음껏 내보이는 기회가 되었다.

기념식을 축하하며 나무를 심은 아이티 후기 성도들

2013년 5월 1일, 아이티의 교회 회원들은 대규모 전국 식목 운동에 동참했다. 식목 운동 첫날에 수많은 묘목이 심어졌고, 그 후로도 더 많은 묘목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이 운동이 완료되면, 아이티에는 약 400,000 그루의 레몬나무, 오렌지나무, 코코넛나무, 파파야나무, 떡갈나무 등이 자라게 될 것이다.

교회는 아이티의 지진 복구 노력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묘목을 구입했다. 회원들은 아이티의 교회 30주년을 기념하는 봉사 활동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다. 아이티는 30년 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통해 회복된 복음이 전파되도록 헌납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앤더슨 장로는 아이티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아이티에서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기념 명판 제막식을 주관했다.

교회, 피딩 아메리카(Feeding America)에 식품 약 450톤 기증

2013년 5월, 교회는 인도주의 조직인 후기 성도 자선단체(Latter-day Saint Charities)를 통해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비영리 기아 구제 단체인 피딩 아메리카(Feeding America)에 450톤 가량의 식품을 기증했다. 기증된 식품에는 과일, 통조림, 콩 등을 담은 통조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물품들은 미국 전역의 보호 시설과 여러 지역 사회 푸드뱅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피딩 아메리카의 사장이자 CEO인 밥 아이컨은 이 기부 물품으로 625,000끼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티의 선교사들과 회원들이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의 높다란 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 촬영: 제이슨 스웬슨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의 역할을 잘 해내십시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있었던 일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나온 후 잠시 향수병에 걸려, 근방에 있는 스털링 캐슬을 구경하며 몇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동반자와 그 성을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한 건물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건물의 문 위에 놓인 돌에는 통상적으로 셰익스피어가 한 말로 추정되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라."

맥케이 회장님은 이 경험을 회상하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혹은 제 안에 있는 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야. 아니, 그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가정을 이루십시오. 부양할 적절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부름받은 대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사진: 쿠엔틴 엘 쿡 장로, 크레이그 다이먼드; 사진 삽화: 스캇 데이비스

이상으로,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이곳에 있는 거야. 너는 교회 대표자가 되는 책임을 받아들였어.' 그런 후 저는 그 오전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광을 했고, 역사에 관한 지식과 정보도 얻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 하지만, 그건 선교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 저는 그 돌에 적힌 그 글을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으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1]

이 문구는 참으로 중요했으며, 그처럼 큰 영향을 주었기에 맥케이 회장님은 남은 평생 그 글귀에서 영감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책임이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기로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젊은 세대인 여러분의 선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을 감안하여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여러분의 실제 모습, 또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존재를 반영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되도록 커다란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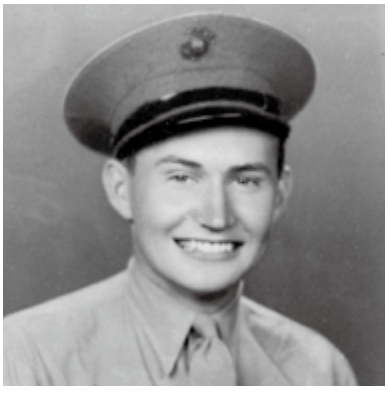
우리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선지자 조셉과 에머는 11개월 된 쌍둥이 조셉 및 줄리아와 함께 오하이오 하이럼에 있는 존슨 부부의 집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어린 아들과 함께 문 가까이에 있는 바퀴 달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얼굴을 검게 칠한 일당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선지자를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구타를 하고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에게 타르를 퍼부었습니다.

이 폭도들의 습격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그 어린 조셉이 아버지가 끌려가는 사이, 밤 공기에 노출되어 심한 감기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 후에 아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2]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의 순교에 가담한 자들 또한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얼굴에 칠을 했습니다.[3]

그 어느 때보다도 익명이 더 쉬워진 우리 시대에 가면을 쓰지 않고 "순교자들[이] 생명 바치신 [신앙에 충실하는]"[4] 것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엘 톰 페리 장로는 일본에 주둔하는 동안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해냈다.

여러분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되어 줄 한 가지는 익명이란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위험을 나타내는 중대한 징조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사탄이 여러분을 낚아채는 하나의 도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신분을 숨기고 익명으로 증오와 독설에 찬 글을 쓰고, 편견에 치우친 글을 퍼뜨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것은 *플레이밍*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니라.]"(고린도전서 15:33~34)

사악한 의사소통은 단순히 나쁜 행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후기 성도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구주에 대한 간증이 없는 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하고 명성을 해치며, 또는 어떤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비난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바는, 사람들이 익명이란 가면을 쓸 때 예의 바른 대화를 하는 데 매우 해로운, 이런 종류의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또한 구주께서 가르치신 기본 원리에도 위배됩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 정죄가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요한복음 3:19~21; 또한 17~18절 참조)

의인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성품을 도야하고 발전시키며 좀 더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움이 될 일들을 하는 데 시간을 보냄으로써,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중에 인생을 재미와 오락으로 보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며, 그보다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앨마서 34:32) 시간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본분을 다하고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훌륭한 본보기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신 엘 톰 페리 장로님의 일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을 점령한 미 해병으로 복무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페리 장로님은 구주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 증거하는 내용을 녹화할 때 그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에 처음 상륙했던 해병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폐허로 변한 나가사키 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경험 중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대부분은 완전히

사진: 엘 톰 페리 장로 © IRI

여러분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되어 줄 한 가지는 익명이란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매장되지 않은 시신도 있었습니다. 주둔군으로서 우리는 본부를 세우고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암울했고, 우리 중 몇몇은 요구된 것 이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부대 군목을 찾아가 현지에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돕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전시 제한 조치 때문에 교회의 기능은 거의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일부 건물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물에서 다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비번인 시간에 자원해서 예배당을 수리하고 칠을 했습니다.

…… 우리는 몇 년에 걸친 전시 상황 동안 목회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성직자들을 찾아서, 사역 활동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 믿음에 따라 예배할 자유를 다시 누리게 되면서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 결코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국으로 데려다줄 배가 있는 곳까지 운행하는 기차에 오를 때 다른 많은 해병 대원들이 우리를 놀렸습니다. 그들은 배웅 나온 여자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병 대원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었고 우리가 일본에 있으면서 재미를 즐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벽을 칠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해병 대원들이 우리를 놀리는 정도가 극에 달했을 때, 기차역 근처에 있던 작은 언덕 너머로 우리가 수리한 여러 교회의 일본인 회원 200여 명이 '주 예수의 군병들'을 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역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철로를 따라 줄지어 섰고, 기차가 출발하자 우리는 손을 뻗어 그들의 손가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표현을 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에서 기독교 활동이 다시 시작되도록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5]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할 때 신중히 고려하고 주도적이 되십시오. 페리 장로님의 모범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여러분이 신앙을 나타내는 문구나 상징물이 있는 옷을 입는다거나, 표면적으로 충실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도, 교회에도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제가 세 번째로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이 숙고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페리 장로님이 해병대로 일본에 계시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말엽에 공군으로 일본에서 복무하셨습니다.

저는 2004년에 패커 회장님을 모시고 다른 몇 분과 함께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옛날 자신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기회가 생겨 몇 가지 경험과 그 시기에 내렸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의로운 목표를 세워 축복을 받았다.

결정들을 되새겨 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허락을 받아 몇 가지 생각과 느낌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오키나와 근해에 있는 어느 섬에서 있었던 경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섬을 광야에서 찾은 자신의 산으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다른 회원들을 접하면서 복음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확증이 부족했는데, 이미 참되다는 느낌을 받은 것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얻지는 못하셨던 것입니다.

패커 회장님의 전기 작가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포착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평온한 느낌으로 확증을 얻는 것과는 상반되게, 그에게는 무고한 자를 상대로 벌이는 지옥 같은 전쟁만이 있었다. 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그는 어느 날 대양 위로 솟은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서 그는 내부가 다 타버린 작은 농가의 잔해와 근처에 방치된 고구마 밭을 발견했다. 그는 죽어가는 초목 사이에 누웠는데, 학살된 어머니와 두 자녀의 시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광경을 보자 깊은 슬픔이 밀려오면서 그 감정은 자신의 가족과 모든 가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함께 뒤섞였다."[6]

그런 뒤 패커 회장님은 임시로 간단하게 만든 벙커 안으로 들어가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패커 회장님이 그 일을 회상하며 설명해 주신 것을 저는 확증을 주는 영적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영감을 느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 맡고 계시는 높고 거룩한 직분에 부름받게 될 것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구주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영감은 다소 심오한 형식으로 왔는데, 그분은 대가족을 함께 양육할 의로운 아내를 찾아야겠다고 느끼셨습니다. 이 젊은 군인은 자신이 그 직업을 택하면 보수를 얼마 받지 못할 것이므로 사랑하는 동반자가 자신과 똑같은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삶을 기꺼이 살아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도 도나 패커 자매님은 패커 회장님에게 완벽한 동반자이십니다. 돈이 충분히 많았던 적은 없었지만,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불우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은 열 자녀를 키웠으므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그분들에게는 손자 손녀 60명과 증손자 증손녀 80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 가치를 두는 것에 기초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 의식을 받은 회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가정을 이루십시오. 부양할 적절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부름받은 대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12:15)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지역 사회를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되어야 할 그런 세대가 되고자 한다면 개인적인 성품, 자질, 결정 외에도, 여러분은 자신의 나라와 여러분이

우리가 물려받은 유태교 및 기독교적 유산은 소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는 지역 사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의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대교 및 기독교적 유산은 소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인, 특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함을 느끼는 이들을 포함하여 선한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라."는 권고를 이해하실 분들입니다. 유대교 및 기독교적 가치관과 종교적 자유가 성공적으로 증대된다면,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할, 위대한 세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시기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여러분이 각자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교회는 정치적 논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원들이 올바른 정부를 보호할 원리들에 기초하여, 자신이 선택한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일에 온전히 참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교리는 분명합니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 구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98:10)

우리는 여러분을 대단히 신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더 훌륭하게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대의 성공은 계속해서 교회가 수립되고 왕국이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면을 쓰지 않고, 실제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며,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이 사는 나라와 지역 사회를 세워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2012년 3월 4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청년 성인에게 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lds.org/broadcasts/archive/ces-devotionals/2012/01?lang=kor에서 볼 수 있다.

주

1. David O. McKay, Francis M. Gibbons, *David O. McKay: Apostle to the World, Prophet of God* (1986), 45.
2. Mark L. Staker, "Remembering Hiram, Ohio", *Ensign*, Oct. 2002, 32, 35 참조.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3쪽 참조.
4.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5. L. Tom Perry, "Joy—for Us and Others—Comes by Following the Savior,".
6. Lucile C. Tate, *Boyd K. Packer: A Watchman on the Tower* (1995), 58–59.

청소년과 성전 성약

게리 카터, 수잔 카터 부부

전임 선교사의 연령 기준을 낮춤에 따라 현재 수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거룩한 성전 성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봉사자로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자 성전에 오는 청년 독신을 만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들이 성전 성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성전 준비 세미나도 도움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의로운 부모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지도자로서 청소년들이 수개월 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첫 단계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준비시키고

부모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사업에 대한 간증을 나눔으로써 자녀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자주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성전에 참석하려는 소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진 영적인 느낌을 우리 자녀와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집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또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1] 우리 자녀들은 성전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가 12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제한된 성전 추천서를 받는 것을 고대하며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전에 참석할 때, 성전에서 추천서를 내미는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과 자부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준비시키며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되면 가족 역사 조사에 참여시켜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 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청소년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조를 더 사랑하고 선조에게 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에 대한 간증과 개종이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대적이 미치는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2]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많은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최근에 한 청녀가 할머니의 이름을 찾은 후에 그분을 위한 대리 의식을 하러 성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청녀는 할머니를 위한 침례를 받으면서 다음 세상에서 할머니가 자신을 반겨 주시리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간증이 강화되고 앞으로도 성전 의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이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으라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부모와 지도자들이 아름답고도 단정한 옷을 입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옷 입는 방식과 자신의 몸을

삽화: 스티브 크롭

대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이 제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청소년이 성전에서 맺게 될 성약을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전 성약에는 "[정결]과 순결의 법을 지키고, 자비롭고 유덕하며 관용을 베풀고 순결하기로 결심하며, 재능과 재물을 바쳐 진리를 전파하고 인류를 향상시키기로 하며, 진리의 대업을 위해 헌신을 계속하며, 이 지상을 만왕의 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힘써 공헌하[겠다] "[3]는 약속들이 포함됩니다.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성약을 지킨다면 평생 개인적으로 강력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간증할 수 있으며, 축복과 성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면 이러한 성약들은 그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전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도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면 될수록 더욱 평화와 영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훌륭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영적으로 고양되는 경험을 할 때, 그들은 더욱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더 좋은 선교사가 되어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도와 그 사람들 또한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

주

1. 하워드 더블유 헌터,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리아호나*, 1995년 1월호 88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6~27쪽.
3. 제임스 이 탈매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2002), 34~35쪽.

우리의 위대한

선교사 유산

과거나 현재나 다름없이, 모든 선교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고 싶다는 소망으로 봉사한다.

라르네 포터 가운트
린다 데커 로페즈
교회 잡지

지금도 선교사들은 주님의 지식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위대한 유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이사야 11:9 참조) 아브라함에서 바울을 거쳐 암몬과 윌포드 우드럽에 이르기까지, 경전과 교회 역사에 나오는 선교사들은 현대의 선교사들에게 위대한 본보기가 된다.

회원 선교사이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든, 선교부에서 봉사하든, 또는 선교부에서 귀환을 했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분들의 모범에서 용기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성경과 값진 진주의 선교사 유산

요나와 같은 구약의 선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부름을 받았다.(에스겔 3:17~19 참조) 요나의 모범에서 우리는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을 본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멜기세덱 신권의 계통과 권능에 대해 알려 준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신약의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힘썼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배도에 빠져들었다.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셨다. 그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나누기 위해 일한다.

© 2009 다니엘 에이 루이스

니느웨 바닷가에 이른 요나, *다니엘 에이 루이스. 요나는 회개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든 곳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사랑이 한 국가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요나 1-4 참조)*

경고의 목소리

"주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그분의 종을 부르십니다. ……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죄의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회피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여러 세대 동안 사악한 백성들이 선지자를 거절했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가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안전과 성공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경고의 음성을 높입시다", *리아호나* 2009년 1월호, 3쪽.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예루살렘에서 통치자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시몬 베터 그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 끌려 나오자 대제사장이 물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베드로[가] ……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28~29)*

사도 바울, *카렐 스크레타 그림. 바울은 전도 여행과 서한을 통해 소아시아 전역과 당시 알려진 세계의 많은 지역에 구주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전했다.*

BPK, 베를린/ GEMAELDEGALERIE ALTE MEISTER,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 / ELKE ESTEL / HANS-PETER KLUT / ART RESOURCE, NY

아브람[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월터 레인 그림.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했으며(창세기 14:18~20 참조) 또한 그에게 신권을 주었다.(교리와 성약 84:14 참조) 한번은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르셨다. "내가 너를 …… 타국 땅에서 내 이름을 받들 성역자가 되게 하기로 뜻을 정하였음이니, …… 너는 네 뒤를 이을 네 자손에게 복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이 성역과 신권을 지니고 모든 나라에게 전하리라." (아브라함서 2:6, 9)*

© 게리 엘 캡 복사 금지

라모나이 왕 앞에 선 암몬, *게리 엘 캡 그림. 모사이야 왕의 한 아들인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양 떼를 구했다. 왕이 암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암몬은 자신이 "[라모나이의]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쳐, 그들로 의롭고 참된 것의 지식에 이르게 하도록"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했다.(앨마서 1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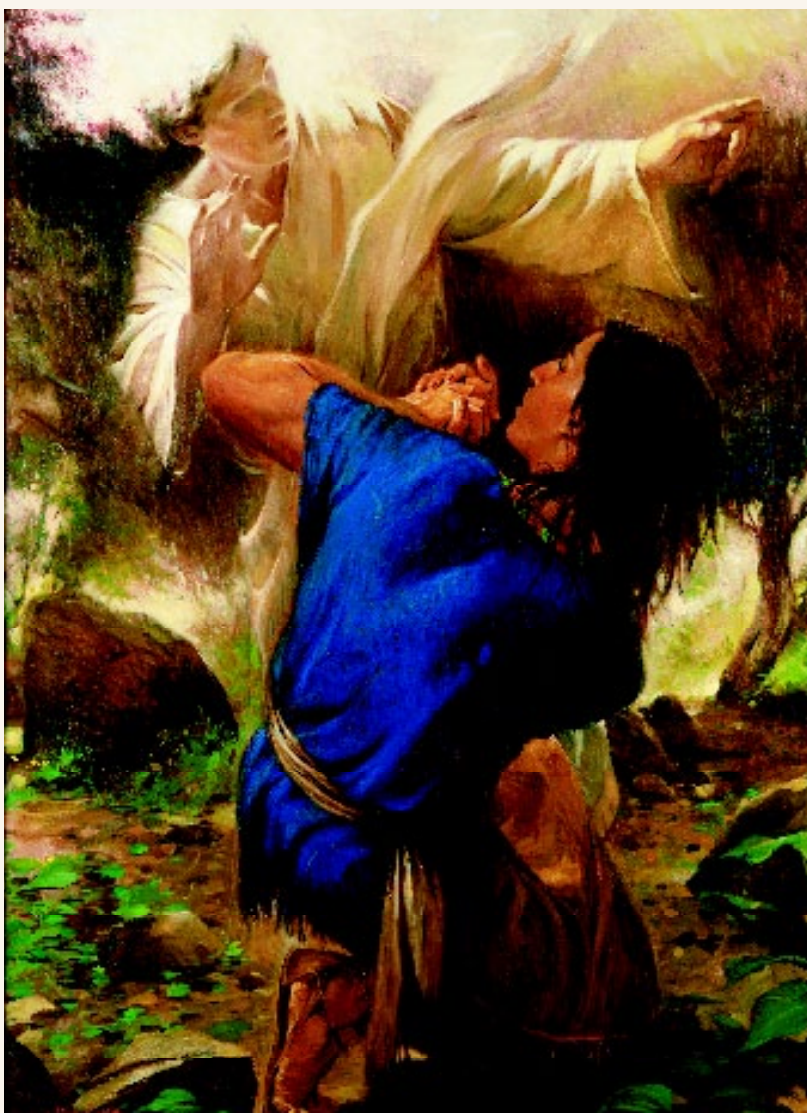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 레이맨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오랜 전통을 신봉하여 영적 성장이 가로막힌 듯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충실한 선교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맨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주께로 돌이킨 레이맨인들은 모두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다.] ' (앨마서 23:6)는 것을 압니다."

Elder James B. Martino of the Seventy, "Repentance That Brings Conversion," *Ensign*, Sept. 2012, 58.

몰몬경의 선교사 유산

앨마, 앰율레크, 모사이야의 아들들, 레이맨인 사무엘 등은 몰몬경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선교사의 본보기 중 몇 명일 뿐이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회개와 신앙, 순종, 용기의 모범을 본다. 우리도 그들처럼 선교 사업에 지침이 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과 계시에 의지할 수 있다.



그는 제 영혼에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월터 레인 그림. 한 천사가 레이맨인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의] 영혼에" 구주께서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 주었다.(힐라맨서 13:6~7) 사무엘은 니파이인에게 가르치라는 부름의 일환으로 제이라헤믈라 성벽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교리와 성약의 선교사 유산

복음이 회복된 후, 선교사는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댄 존스, 올슨 하이드, 팔리 피 프랫 등과 같은 선교사들이 몰몬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눴다. 선지자 조셉의 형제인 새뮤얼과 같은 일부 선교사는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봉사했다. 그 외 선교사들은 복음을 나누기 위해 태국, 샌드위치 제도(하와이), 덴마크, 영국 등과 같은 먼 곳으로 가야 했다.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은 오랫동안 여러 선교부에서 봉사하기도 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교 사업을 위해 부모와 연인, 아내, 자녀, 손자 손녀 등을 남겨 두고 떠났다. 그들의 봉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과 용기, 순종, 인내, 근면의 모범이다.

© IRI, 아놀드 프리버그 제공

몰몬 전도사, 아놀드 프리버그 그림, 크리스천 달스가르드의 원작에 기초함. 초기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시골 집에 모인 한 덴마크인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장면은 19세기 선교 사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선교사들은 길모퉁이나 마을 회관에서도 가르쳤다.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벤보우 농장에서 침례 줄 준비를 하는 윌포드 우드럽 *그림, 리처드 에이 머리. 주님은 1840년대에 윌포드 우드럽을 영국 헤리퍼드셔의 존 벤보우 농장으로 인도하셨다. 윌포드는 이렇게 적었다. "그곳에는 고대에 주어진 그대로의 것을 간구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그곳으로 갔고, 30일 만에 6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 그 나라에서 8개월간 봉사하면서 천팔백 명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곳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Discourse,"* Deseret Weekly, *Nov. 7, 1896, 643)*

1851년에 새로 도착한 선교사들이 샌드위치 제도(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 사진은 그보다 훨씬 후의 사진이다.

복사 금지

우리의 선교사 유산을 쌓으라

201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청남 청녀가 더 어린 나이에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다고 발표하신 후, 수만 명의 후기 성도들이 선교 임지로 모여들었다.

201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은 선교 사업에 대한 간증을 더하시면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이 기적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라고 격려하셨다.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어 더 많은 선교사가 봉사하게 됨에 따라, 그분은 또한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마음을 열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들을 알거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에도 삽니다. 길에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거나 학교에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거나 온라인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8쪽). ■

길거리에 선 개척자, 켄 스펜서 그림.
두 선교사가 미국 뉴저지 뉴브런즈윅의 어느 서점 앞에서 복음을 나누고 있다.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선교사 명찰

"여러분이 외투에 명찰을 단 전임 선교사가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명찰을 하나 새겨 넣을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9쪽.

교회 역사 관물박

레이맨인들이 장미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호셀리토 헤수스 아세베도 가르시아 그림. 이것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선교 사업의 영을 담아 낸 그림이다. 일상 업무로 바쁜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 선교사가 복음을 가르칠 준비를 한다. 작은 집들과 토종 동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페루 리마 성전은 교회의 성장을 나타낸다.*

© IRI, 주에이 잉 첸 제공

언제나 선교사, 주에이 잉 첸 그림. 대만의 교회 회원들은 세계 각지의 회원 선교사들이 그렇듯 복음과 경전에 대한 기쁨을 나눌 기회를 찾는다. 경전이 탁자에 놓여 있고, 여러 두루마리가 들어 있는 푸른색 긴 통에는 대만 타이페이 성전 그림이 보인다.

교회 역사 관물박

시에라리온의 후기 성도 선교사, *에밀리 윌슨 그림. 시에라리온의 첫 번째 선교부가 2007년 7월 1일에 프리타운에서 조직되었다. 2012년 12월 2일, 프리타운에 교회의 3천 번째 스테이크가 세워졌다.*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싸울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십시오

만군의 주이신 구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전쟁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합시다.

1485년에 영국 왕위는 리처드 3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였고, 리처드 왕은 여러 차례 자신의 왕관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험이 풍부한 노장으로, 팔천에서 만 명 정도에 이르는 군대를 이끄는 대담하고 빈틈없는 전사였습니다.

그 해에 리치몬드의 백작인 헨리 튜더는 왕위를 노리고 도전했으며 보스워스 필드란 곳에서 리처드와 격돌했습니다. 헨리는 리처드와는 달리 전투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병력도 불과 오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에는 훌륭한 귀족 참모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몇 차례 리처드에 맞서 싸운 적도 있었고 여러 비슷한 전투에 참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고,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리처드가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1485년 8월 22일의 일은 잘 알려진 한 극적인 전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 아침 리처드 왕과 그의 군대는 헨리의 군대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투의 승자가 영국의 통치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에 리처드는 즐겨 타는 말이 출전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마부를 보냈습니다.

삽화: 그레그 뉴벨트

마부는 대장장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편자를 박게. 왕께서 선두에서 진격하고자 하시네."

대장장이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왕의 모든 군대를 위해 편자를 박았어요. 지금 철을 더 가져와야 합니다."

참을성이 없는 마부는 기다릴 수 없다고 다그쳤습니다. "왕의 적들이 진격해 오고 있단 말일세. 우리도 빨리 출전해야 하네." "지금 있는 걸로 만들어 보게."

대장장이는 명령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쇳조각을 두드려 편자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편자를 두드려 만든 후에 말 발굽에 편자를 달았습니다. 네 번째 편자를 달려고 하는데, 못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못이 한두 개 더 필요합니다.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장장이가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부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출전 나팔 소리가 들리네.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나?"

대장장이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네 번째 편자가 견뎌 낼지 장담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걸 그냥 달도록 하게." 마부는 명령했습니다. "서두르게, 안 그러면 리처드 왕이 우리에게 불호령을 내리실 걸세."

전투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 왕은 군대를 집결하고자 벌판을 종횡무진 달리며 힘껏 외쳤습니다. "진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

리처드가 전장을 살펴보는데, 자기 군대 일부가 후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군사들도 퇴각할까 두려워진 그는 후퇴한 부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말이 비틀거리더니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왕은 땅바닥에 곤두박질쳤습니다. 대장장이가 우려했던 것처럼 왕이 말을 질주하는 동안 편자 하나가 떨어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리처드가 땅을 박차고 일어나자, 말은 일어나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헨리의 군대가 진격하는 가운데, 리처드는 칼을 공중에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말! 말! 말 때문에 왕국을 잃다니!"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리처드의 군대는 진격해 오는 헨리의 군대가 두려워 달아났고, 전투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 후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속담이 돌았습니다.

작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실 것입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손쉬운 방법을 취해도 미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서 큰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별것 아닌 듯 보이는 부주의나 태만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단순하면서도 꾸준하고 훌륭한 습관은 축복 가득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29쪽.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를 잃었네.
편자 하나가 없어서, 말을 잃었네.
말 한 마리가 없어서, 싸움에 졌네.
싸움에 한 번 져서, 왕국을 잃었네.
이 모든 것이 편자 못 하나가 없어서 생겨난 일.[1]

복음 원리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서, 형편없게 박힌 편자 못 하나와 같이 단순한 것 때문에 그토록 극적인 사건에 반전이 생겼다는 점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빠진 못을 복음 원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 원리와 그와 관련된 가치관 및 실천이 결핍된다면, 우리는 유혹과 악에 맞서는 전쟁터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나 가족에게서 결여되어 있는 실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인 또는 가족 기도를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경전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정기적인 가정의 밤은? 완전한 십일조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봉사는? 안식일 준수는? 성전 예배는? 이웃 사랑은?

우리 각자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우리 생활과 가족 안에서 어떤 원리나 실천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리 또는 실천 사항을 파악한 후, 부지런함과 굳은 결심으로 못을 단단히 박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욱 온전히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하며, 옳은 것을 옹호하도록 자신과 가족을 더 잘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내가 너희에게 부어 줄 내 영의 검과 내가 너희에게 계시하는 말씀을 가지고, ……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27:18)

주님께서는 충실한 종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팔은 나의 팔이 될 것이요, 내가 그들의 큰 방패와 그들의 작은 방패가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의 허리를 동여 주리니, 그들은 나를 위하여 남자답게 싸울 것이요, …… 나의 진노의 불로써 내가 그들을 보전하리라."(교리와 성약 35:14)

잠언에 나오듯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안전]은 여호와께 있[음]"(21:31)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모로나이서 10:32)는 모로나이의 권고를 따르도록 합시다. 만군의 주이신 구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전쟁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합시다. ■

주

1. "For Want of a Horseshoe Nail," William J.Bennett, ed., *The Book of Virtues: A Treasury of Great Moral Stories* (1993), 198–200 참조.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랑하며 봉사함으로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구원 사업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전임 선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집회소를 안내하게 되어 기대와 흥분도 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구원 사업이란 큰 그림의 한 귀퉁이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사업을 가속화하는 이 변화 속에서 회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동참하라는 요청은 받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라는 권유만 받았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을 위로하며, 친구들에게 침례를 권하고, 이웃에 사는 연로한 분들의 뜰을 청소하는 일을 돕고, 저활동 회원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이웃이 자신의 가족 역사 사업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저활동 회원들과 타종교인들을 초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할 자연스럽고도 즐거운 방법이다. 사람들과 함께 우리 삶에서 즐거운 시간과 성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포도원에서 일"(교리와 성약 138:56)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커

구원 사업이란 무엇인가?

구원 사업은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기]"(모세서 1:39)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이 중요한 사업에는 회원 선교 사업,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들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을 가르치는 일 등이 포함된다.[1]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이러한 일면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 2013년 6월 23일에 방송된 *구원 사업: 전 세계 지도자 방송*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모든 일은 정말로 나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 사업의 일부입니다."[2]라고 가르쳤다.

이 방송과 관련된 웹사이트, hasteningthework.lds.org의 제목이기도 한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란 문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리와 성약 88:73)

필수적인 신권 의식, 즉 침례, 확인, 신권 성임(남성에게만 해당), 성전 의식 등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에서 이정표 역할을 한다. 구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 성약의 길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신권 열쇠 하에서 함께 일한다

이제, 주님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곧 그분의 구원 사업에 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을 뜻한다는 근본적인 원리를 재강조할 때가 왔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자신의 교회 단위 조직에서 선교 사업에 대한 신권 열쇠를 지니며[3], 회원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일, 즉 복음의 빛을 나누는 일을 하도록 돕는다. 선교부 회장에게는 자신이 이끄는 선교사들의 업무를 지시할 신권 열쇠가 있다.[4] 전임 선교사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훈련받는다. 선교사는 회원 선교 사업을 하는 회원들을 돕는 역할이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임 선교사와 회원 선교사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조력자이다.

방송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이 바로 회원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여 영혼들을 그분께로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으로 행할 때 우리의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5]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극을 받아, 신앙과 단합, 즉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신앙으로, 또한 서로 하나가 되고 선교사와 단결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6]

와드 평의회가 이끌고 와드 선교 책임자가 조율한다

와드 평의회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와드의 구원 사업을 계획하고 이끌면서 와드 회원들의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조율한다.[7]

와드 평의회 일원으로서 와드 선교 책임자는 "구도자를 찾고, 가르치며, 침례를 주기 위한 와드의 노력을 협의 조정한다. 전임 선교사와 와드 선교사가 하는 일과 협의 조정한다."[8]

와드 선교 책임자에 대해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선교사들]의 계획표를 의미 있는 기회들과 약속들로 채워서,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들을 찾아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여러분은] 선교사와 와드 평의회, 와드 회원들을 잇는 연결 고리입니다."[9]

성공의 진정한 척도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시는 시기에 사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지상에 보내신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능력이 있다. 우리가 친절과 사랑으로 우정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영감을 따르면, 그리고 복음을 중심에 둔 삶을 살도록 단순히 사람들에게 권유한다면, 선교 사업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사람들이 침례받거나 교회에서 활동화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 같은 권유를 했는지 여부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선교부 임지로 오는 용사와 같은 선교사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 그들이 오는군.'이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서 보내 주신 이 자원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또 그렇게 활용해야 합니다."[10]

지금은 우리 모두 구원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더 분명하게 우리의 역할을 이해해야 할 때이다. 회원 선교 사업을 하고, 개종자들을 유지하며, 저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키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복음이 우리 삶에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가르친다면, 우리는 큰 기쁨을 맛보고, 21세기에 교회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은사들을 받게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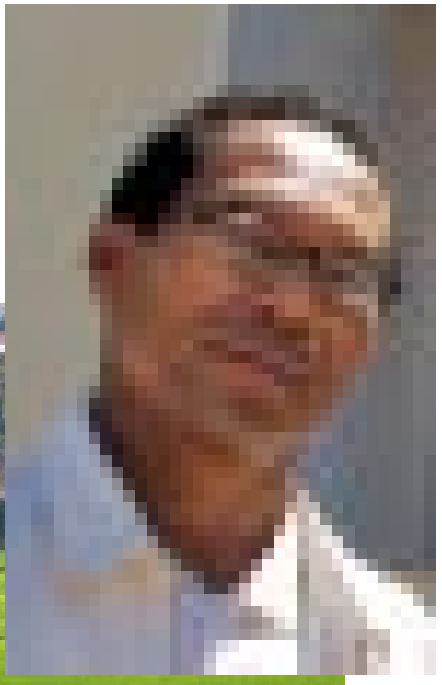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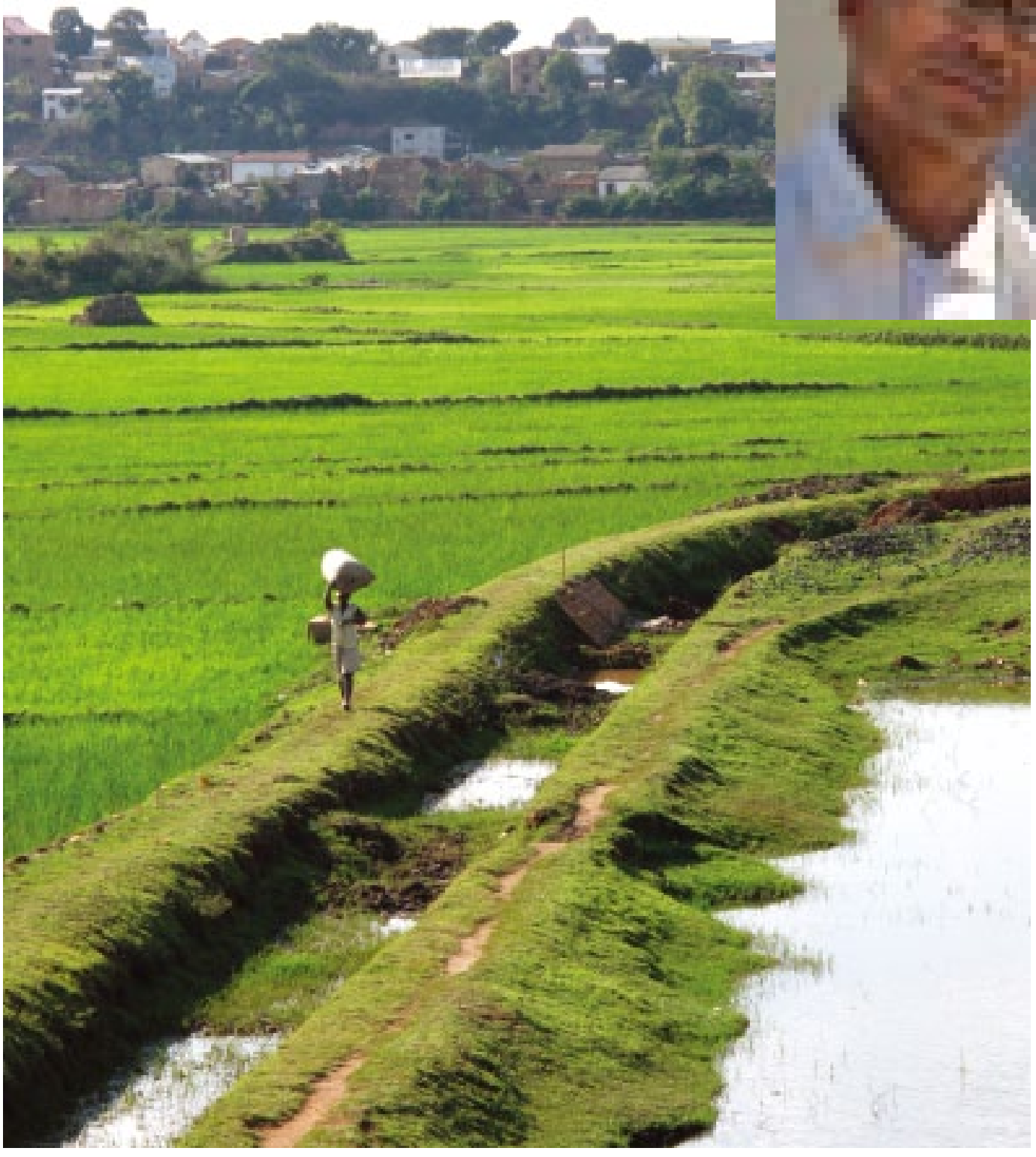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5장 참조.
2. 러셀 엠 넬슨, *구원 사업: 전 세계 지도자 방송*, 2013년 6월 23일, hasteningthework.lds.org
3. *지침서 제2권*, 5.1.6; 5.1.9. 참조.
4. *지침서 제2권*, 5.1.6. 참조.
5. 토마스 에스 몬슨, *구원 사업*, hasteningthework.lds.org
6. 닐 엘 앤더슨, *구원 사업*, hasteningthework.lds.org
7. *지침서 제2권*, 5.1.2. 참조.
8. *지침서 제2권*, 5.1.3.
9. 러셀 엠 넬슨, *구원 사업*, hasteningthework.lds.org
10. 제프리 알 홀런드, *구원 사업*, hasteningthework.lds.org

*구원 사업: 전 세계 지도자 방송*을 26개 언어로 시청하려면, **hasteningthework.lds.org**에 접속한다. 또한 **lds.org/broadcasts**에서 59개 언어로 방송된 것을 시청할 수 있다. 29개 언어로 된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는 **lds.org/manual/handbook**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 삽화: 조 루크, 코디 벨

선교사들이 택시를 탄 것을 계기로 로저 랜드리아나리손이 제자의 길에 들어섰다.





랜드리아나리손 가족의 사진. 매튜 디 폴리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로저 가족은 성전과 선교 사업, 봉사를 통해 영원한 가족이 되는 길을 나아가고 있다.

매튜 디 플리튼
교회 잡지

로저 랜드리아나리손은 자신의 가족 생활에서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 제 가족을 이끌 뭔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가족을 선한 뭔가로 이끌고 싶었고, 옳은 길로 이끌어줄 뭔가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세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인 랜드리아난드리와 세디니리나, 딸 니리나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그는 화를 잘 내는 자신의 성미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기에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좀 더 온화한 부모가 되고 싶었다.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에 바뀌어야 할 사람은 저라고 판단했습니다."

로저는 수년 전에 건설업을 폐업한 후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매 선교사 두 명을 태웠다.

"차에 타자, 제 이름을 물으며 가족이 있냐고 묻더군요. 제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고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로저와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그를 교회로 초대했다. 그러나 그는 몇 번이고 가려 했지만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선교사들과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다섯 달이 지난 어느 날, 로저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담장 밖에서 두 선교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로저는 선교사들이 자신과 이야기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선교사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든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소개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랜드리아나리손 가족은 복음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네."였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네. 선교사와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네. 언제가 좋겠습니까? 지금요. 선교사들은 20분 후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근처에 사는 회원을 한 명 데리고 다시 왔다.

선교사들은 한 달간 로저의 집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다. 하지만 로저의 가족들은 교회에 대한 소문 때문에 선교사들과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한 달간 복음에 대해 배운 후, 로저는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에 갔다. 그는 따뜻한 환대에 감명받았다. "회원들은 이미 저를 오랫동안 알아온 것처럼 환대해 주었습니다."

로저는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자신은 한 달 안에 침례를 받을 것이며 교회에 가입할지 여부는 각자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자신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고 했다. 가족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놀라움과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로저의 큰 아들 랜드리아난드리는 교회 모임에 처음 참석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겸손해서 놀라웠어요." 무엇보다도, 교회 모임을 위해 복장을 잘 갖춰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목적을 갖고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랜드리아나리손 가족은 2003년 2월 20일에 함께 침례를 받았다. 당시에 니리나는 8세, 세디니리나는 17세, 랜드리아난드리는 19세였다. 이 가족은 더는 일요일에 일을 나가지 않았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변화

"제가 침례 받은 후, 우리 가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저의 아내 아렐리나가 말한다. "우리 집은 영적인 집이 되었고, 복음대로 생활함에 따라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현세적인 축복으로, 로저는 자신이 사업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고 믿는다. 가족 부양을 위해 택시 운전은 물론 닥치는 대로 2년간 일을 하다가 그는 건축 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들이 보기에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의 기질이 변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들들은 이제 그를 겸손과 친절의 본보기로 지칭한다. 로저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복음이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다고 말한다.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한 때부터 로저는 자신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우고자 노력했다.

"복음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때로 화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제 가슴에, 제 머리에, 제 영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늘 평온합니다."

기분이 상해질 상황이 오면, 가족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 상황에서 구주께서 하셨을 행동을 하도록 일깨워 주는 사람은 바로 로저다.

세디니리나는 말한다. "아버지는 겸손해지셨고 이제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세요. 아빠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 회원이 되게 해 주신 축복과 복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어요."영원한 가족

2006년에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의 도움을 받아 로저와 아렐리나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디니리나와 랜드리아난드리는 남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세디니리나는 케이프타운에서, 랜드리아난드리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봉사했다. 그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게 된 동기 중에는 다른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처럼 변화하도록 돕겠다는 소망도 있었다.

랜드리아난드리는 말한다.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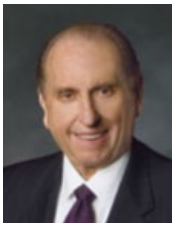
그 결정으로 랜드리아나리손 가족에게 또 다른 축복이 찾아왔다. 9일 차이로 세디니리나와 랜드리아난드리가 요하네스버그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한 것이다. 로저는 아렐리나와 딸 니리나를 데리고 남아프리카로 날아가 온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열네 살이 된 니리나는 그 경험과 자신이 느꼈던 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제 신앙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이 가족은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로저는 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아렐리나는 초등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세디니리나는 스테이크 보조 서기로 봉사한다. 랜드리아난드리는 와드 보조 서기로 봉사한다. 니리나는 와드 음악 지휘자이다.

랜드리아나리손 가족에게 복음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복음을 통해 오랜 상처들이 아물었고, 서로 가까워졌으며, 영원히 함께할 기회가 찾아왔다. 로저는 복음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말한다. "가족 생활은 사랑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

랜드리아나리손 가족은 남아프리카로 가서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인봉됨으로써 강화되었다.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

"세계에는 성전이 너무 멀어서 그곳까지 가는데 드는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사는 지역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성스럽고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우리는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성전 방문을 갈망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회원들이 한 차례 성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입니다. 이 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매달 감독님께 드리는 헌금 명세서에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다시 만나며",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5쪽.

위 사진 촬영: 데이비드 크랠리언 뉴먼 © IRI; 아래 사진 촬영: © LAURA PARKER

매튜는 돌아올까?

우리 와드 청남 조직은 강했지만, 내 아들 매튜는 자신처럼 차와 기계에 빠진 비회원 친구와 더 가까이 지냈다. 불행하게도, 그 친구의 가족은 종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부모는 집에서 술 담배 하는 것도 허락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매튜는 스카우트 활동에서 최고 등급을 얻었지만, 스카우트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았기에 시상식에 오지 않았다. 나는 매튜의 스카우트 상을 모두 모아 진열함을 만들었다. 언젠가는 그것이 매튜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한 곳에 두었다. 열여섯 살이 되자 매튜는 술 담배에, 마약까지 했다. 학교를 중퇴하고 여자 친구와 동거도 시작했다. 몇 년 동안이나 우리는 매튜를 거의 보지 못했다.

우리는 비탄에 빠졌다. 우리는 매튜가 가족과 신앙의 품으로 돌아올지는 알지 못했지만, 다루기 힘든 아들을 둔 앨마의 모범을 따르기로 했다. 앨마는 계속해서 아들을 사랑했고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모사이야서 27:14) 바라며 신앙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매튜의 삶에 관여하여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과 행동으로 매튜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다. 매튜가 가끔 집에 들르면 비난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일 만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반가움만 표했다.

어느 날, 매튜는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파티에서 한 소녀를 만났는데 교회에 대해 물었다고 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기도 전에, 매튜의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매튜는 자신이 그 소녀의 질문에 즉각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매튜는 자신이 말한 그 내용을 배웠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한 말이 진실임을 알았다. 여전히 복음을 믿으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매튜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사흘 동안 자신을 돌아본 끝에 매튜는 자신의 현재 생활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매튜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매튜는 비슷한 어려움을 이겨낸, 다른 주에 사는 사촌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지내도 되겠는지 물었다. 사촌은 그렇게 하라고 했고, 매튜는 사촌과 함께 교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으며, 회개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감독님을 만났다. 매튜는 사랑과 지지를 느꼈고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

이윽고 매튜는 사랑스럽고 의로운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성전에서 결혼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매튜의 집으로 가면서 나는 매튜의 스카우트 상으로 만든 진열함도 가져갔다. 매튜는 감격해하며 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자랑스럽게 걸었다.

앨마 이세처럼 우리 아들이 천사를 만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튜가 진리로 돌아온 것은 그에 못지 않은 기적이었다. ■

익명

매튜의 스카우트 상을 모두 모아 진열함을 만들었다. 언젠가는 그것이 매튜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한 곳에 두었다.

삽화 : 브래들리 클락

나는 집에 와 있었다

봉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는 몇몇 동료 의사들과 함께 르완다로 의료 지원 여행을 떠났다. 2주쯤 지나 봉사 일정이 끝나가자 조금씩 집 생각이 났다. 가족과 편안한 침대, 우리 집이 그리웠다.

아프리카에서 보내는 마지막 일요일에 일정을 조정해서 교회에 참석했다. 르완다에서는 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였지만, 교회 웹사이트에서 모임 시간과 위치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길 안내는 정말이지 독특했다. "정부 청사에서 자갈길을 걸어내려 간다. 열린 대문을 찾는다. 계단을 내려간다."

설명대로 길을 찾아가는데, 익숙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의 노랫말이 들려왔다. 계단이 끝나는 곳에 작은 건물이 있었다. 그곳에 웃음 가득한 수십 명이 입구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낯선 사람이었음에도, 친밀감이 느껴졌다. 몇십 명의 르완다 형제 자매들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했다. 그러자 숨 막힐 듯한 외로움은 달아나고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와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세 시간짜리 모임에 참석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성찬을 돌렸고, 구주에 중심을 둔 성찬식 말씀을 들었다. 주일학교 공과도 그 주에 우리 와드에서 가르친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낯선 사람이었음에도, 친밀감이 느껴졌다. 몇 십 명의 르완다 형제 자매들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 내내 주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 선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웃음이 느껴졌다. 1년 전만 해도 르완다의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은 단 몇 명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참석했을 때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절반은 밝게 웃는 어린이들이었다.

이제 르완다는 선교 사업에 개방되어 있으며, 나는 나날이 늘어나는 르완다 구도자들에게 영이 임하여 회복된 교회가 전 세계를 위한, 모든 대륙을 위한, 모든 백성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임을 증거하여 선교사들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캘리포니아 중앙 해안에 있든, 또는 중앙 아프리카 자갈길 아래에 있든,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

스티븐 세인스버리, 미국 캘리포니아

어떻게 렉스버그에서 살게 되셨나요?

나는 남편과 함께 교회 회원이 얼마 없는 곳에서 수십 년간 살다가 미국 아이다호 렉스버그의 한 동네로 이사했다. 그 마을은 비회원 가족이 딱 두 가정밖에 없는 곳이었다. 우리가 그중 한 가족 옆에 살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이사하던 날 차를 몰고 들어설 때 이웃집 아저씨는 잔디를 깎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그 이웃과 친해지고자 다가갔다. 나는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면서 물었다. "어떻게 렉스버그에서 살게 되셨나요?"

그가 대답했다. "직장 때문이죠.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가 있는 동네를 특별히 찾고 있었죠."

마치 찬물 한 양동이를 얼굴에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이었지만, 나는 웃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 순간 나는 새 이웃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여태껏 그 가족이 만난 이웃 중에 *가장* 좋은 이웃이 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주께서 그러셨을 것처럼 친절하고, 다정하며, 사리에 맞게 대하고자 노력했다.

그 후 8년간 이웃으로 살면서 가족 간에 많은 활동을 함께했다. 상호부조회 모임에 이웃집 아주머니를 초대해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그녀는 나와 많은 후기 성도 이웃을 자신의 교회에서 후원하는 기독교 여성 피정(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묵상이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살피는 일-옮긴이)에 초대했다. 남편과 나는 그들 자녀의 댄스, 피아노 발표회에 초대되었다. 그들 가족은 야외 요리 파티를 비롯한 여러 파티에 초대되었다. 이웃집 큰 아이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부모와 연락이 안 되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새 이웃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여태껏 그 가족이 만난 이웃 중에 *가장* 좋은 이웃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 부모는 자녀들이 후기 성도들을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될까 봐 걱정한 나머지 아들들이 우리 와드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집만큼은 안전한 장소로 여겼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오는 날에는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서 노는 것을 허락했다.

이웃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오류"를 설복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웃에게 그들의 믿음과 생활 방식, 자녀 양육법을 매우 존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도 구주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있으니, 우리 믿음도 존중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후기 성도는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주장으로 우리의 차이점에 깊고 건널 수 없는 골을 만들고자 시도했을 때, 우리 둘 다 구주는 신성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결국에 그녀와 나는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다.

그들 가족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이사를 떠났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우리는 몰몬들 가운데 살았는데, 그들은 신실한 마음을 지닌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 그들이 후기 성도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돕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라고 느낀다. ■

산드라 러시, 미국 아이다호

사진함

여러 해 전에 남편과 함께 쓰레기 더미를 버리러 시내의 쓰레기 매립지로 갔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상자 하나를 집어 소각로에 넣으려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갑자기 상자가 열리며,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그걸 보고는 가서 그 사진 상자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사진 줍는 것을 도왔다. 그 여성과 나는 사진이 실수로 버려졌다고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게 그 사진들을 달라고 부탁했다.

상자 안에 든 수백 장의 사진을 살펴보다가 캐나다 앨버타 와버그에 사는 누군가의 주소가 적힌 봉투가 나왔다. 그 후 수년 간,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게 된 후, 나는 와버그에 역사 협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진 뒷면에서 찾아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한 달쯤 지난 후에 한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역사 협회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누이가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산다며 누이에게 사진을 살펴보게 해도 되는지 물어왔다. 우리는 물론 좋다고 했다.

다음 날, 후기 성도이기도 한 플로이드 호손과 베스 호손 부부가 사진을 보러 왔다. 내가 상자를 열자 호손 형제는 맨 위에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계시네."라고 외쳤다. 호손 자매의 할아버지 사진이었다.

호손 부부는 사진을 한 장씩 집어 들고는 사진 속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호손 부부는 사진을 버린 사람이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여기지 않았으며 어째서 사진이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진을 호손 가족에게 돌려주도록 도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가족 역사 사업이 이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임을 간증한다. 우리가 이 사업을 기꺼이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

신디 헤기, 캐나다 앨버타

그 순간 갑자기 상자가 열리며,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그걸 보고는 가서 그 사진 상자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성공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동반자와 함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모두들 우리의 메시지를 거절했다.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로렌 뱅거터 와일드

선교 사업을 나온 지 일 년 남짓 되었을 무렵, 내게 특별히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다. 우리는 추운 겨울을 벗어나 봄으로 향하는 음울하고 흐릿한 절기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동반자와 함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말을 건넨 사람들은 단칼에 우리의 메시지를 거절했다. 다른 선교사들을 만나보니 그들의 일은 점점 탄력이 붙고 있었다. 우리는 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나라 언어를 잘 구사할 만큼 선교 사업도 오래했고, 동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회원들과 신뢰도 쌓았고, 영을 따르고 선교부 규칙에 정확히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매번 거절당했다. 이런 일이 몇 주간 계속되자 나는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계획을 세우는 시간에 나는 결국 "이게 다 무슨 소용이죠?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요." 하고 소리치고 말았다. 나보다 더 훌륭한 관점을 지닌 동반자는 "신앙을 보이기 위해 목표를 세웁시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 보기 위해 우리 목표의 성취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라고 말했다.

동반자의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선교사로서의 성공을 판단하는 데 잘못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에는 성공적인 선교사들의 행동이 열거되어 있다.[1] 나는 선교사들이 그런 행동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선교부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선교사가 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었다. 내 동반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을 갖고 있고 그분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기에 이미 성공적인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신앙은 기적으로 이끈다

나는 내 신앙이 약해지고 있음을 깨닫고는 겸손해졌다. 내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고, 계획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을 때 스스로 실망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이렇게 나온다. "낙담은 여러분의 신앙을 약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기대치를 낮춘다면 효율성은 줄어들고, 여러분의 소망은 약해지고, 점점 더 영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2] 나는 좌절로 내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마음의 변화와 더 큰 신앙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몰몬서 9장 21절에 나오는 다음 약속에 의지했다. "누구든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에게 주시리니, 이 약속은 참으로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니라." 이 약속에 따라 동반자와 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낀 축복과 기적을 위해 더 열렬히 기도했다. 그리고 항상 "당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런 기도를 드린 나는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과 좌절을 더 큰 신앙으로

사진 출처: 로렌 와일드

성공적인 선교사 되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신이 성공적인 선교사임을 알 수 있다.

- 영이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느낄 때.
-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
- 선교부 규칙을 완전하게 지킬 때.
-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킬 때.
-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를 경고할 때. 그들이 결심을 하고 지키도록 도울 때.
- 사람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선행하고 봉사할 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0~11쪽에서 발췌**

주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하시어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권합니다. …… 지위나 신분, 또는 인간적인 약점에 관계없이 자신이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느끼면 더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고 신앙이 커지며 인생의 모든 일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성공과 번영[모사이야서 2:22 참조],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모사이야서 2:41 참조]."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장로, 칠십인, "주님께 받아들여짐",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06쪽.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신앙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나는 주님께서 온종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나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는 내용이 참됨을 알게 되었다. 즉, 기대치를 높일 때 효율성도 높아지고 소망도 커지며 영을 더 잘 따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내가 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인식하고 감사드렸을 때, 나는 선교 사업과 선교사 봉사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감사는 시기심을 없앤다

주님은 그분이 매일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지만 진정으로 감사함을 나타내는 의식적인 노력을 한 후에야 비로소 그 기적들을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나 좋은 예절 그 이상의 것이다.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을 때 나는 힘을 얻었다. 나는 다른 선교사들이 성공할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었다.(앨마서 29:14, 16 참조) 나는 나의 부족한 점과 잘못된 부분이 아닌, 내 장점과 잘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나는 감사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해 주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성공적인 선교사라고 느끼지 못할 때는 주로 "남들처럼 하고 있지 않아."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해."라고 생각할 때였다. 나는 또한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따르도록 의로운 모범을 보여 주시는 것이지만 사탄의 방법은 우리의 가치나 성공을 남과 비교해서 평가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선교사들과 비교하고 여러분의 외적인 결과를 그들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을 피한다."[3] 결국 교만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감사가 힘이 되었으며, 감사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다. 동료 선교사들이 더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시기할 필요가 없었다.[4]

진정한 성공의 잣대

이렇게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특정 축복에만 온 마음이 쏠린 나머지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의 선교 사업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결국, 주님은 기대하지 못한 멋진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선교 사업을 축복하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메시지를 들으려는 사람들을 찾았으나 그때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내 성공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선교 사업에 관한 어느 선교부 회장님의 권고를 들려 주셨다. "최선에 최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되, 추수는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성공적인 선교사들과 관련하여 이와

여러 면에서, 선교사로서의 성공의 척도는 내가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는지, 계속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유사한 가르침을 전한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배우고 발전하고자 노력[한다]."[6]

내가 기꺼이 회개한다면, 주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는 내가 성공적인 선교사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느낀다. 여러 면에서, 선교사로서의 성공의 척도는 내가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는지, 계속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일지에 많은 기적을 기록해 왔다. 내가 더 충실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할 때 더 나은 관점으로 보게 되었고, 낙담을 피하고, 일할 때 영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다음 가르침이 참됨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여전히 실망을 경험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 영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7] 주님이 나에 대해 기뻐하신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다. ■

글쓴이는 미국 메인에 산다.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0~11쪽 참조.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0쪽.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0쪽.
4. 제프리 알 홀런드, "포도밭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1쪽 참조.
5. 고든 비 힝클리,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0쪽.
6.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0쪽.
7.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0쪽.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 주십시오

"저는 최근에 귀환했으며, 이제는 목적 의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환 선교사 여러분!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복학이나 취업, 혹은 다른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이메일로 liahona .lds .org에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명, 생년월일, 와드나 지부 명도 기입해 주십시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또 대표하는 분인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는 무엇보다도, 또 우선적으로, 언제나 선교사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는 이 놀라운 후기의 사업에 종사하는 동료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게 된 것에 각별한 기쁨을 느낍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란 어떤 선교사일까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란 예언에 따라 부름을 받고 안수를 통해 권세를 받은, 구주의 영속적인, 회복된 복음을 그분의 방법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종을 말합니다.(교리와 성약 50:13~14, 17~24; 교리와 성약 68:1 참조)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설명되어 있는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딤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1]하는 것입니다.

권세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신성한 의무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으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다 되었다고 말씀"[2]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가 되는 자격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자신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왜 봉사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해합니다. 전임 선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대표자로서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성별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실재성, 신성, 사명에 대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합니다.(교리와 성약 133:37 참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표합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일은 우리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점점 더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일치되어 가야 합니다.

구속주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회복된 복음의 기본 교리와 원리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변적인 추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단순한 진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또한 영의 권능으로 전파하고 간증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구주를 대표하고 그분에 대해 간증할 책임이 결코 끝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실, 여러분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기억하시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교류를 나눌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앞에서 올바르게 그분을 대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격 요건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합당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합당성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선결 요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명백하게, 몇 가지 간단한 진리들을 명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세상의 구속주와 구주이신 분에게서 승인받은 대표자입니다.
- 우리는 회복된, 또 영원히 계속될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 우리가 세상의 얼룩에 물든 채로는 그분을 대표하거나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행하는 등의 일에서 권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 만일 우리 자신이 죄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88:86 참조)
- 만일 우리 자신이 여태껏 적절하고 완전하게 회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회개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오직 우리가 얻으려 노력하는 권능으로써만 복음을 선언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소망과 그분의 대리자로서 행할 수 있는 합당성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완벽을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끗할 것과 이스라엘의 구속주 앞에서 올곧게 행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교리와 성약 38:42)

회개는 실망이나 절망이 아닌, 희망과 치유의 원리입니다. 회개는 실로 겸손하게 하지만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많은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위안을 주며,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회개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는 주님의 속죄를 통하여 실현되는 매우 귀중한 은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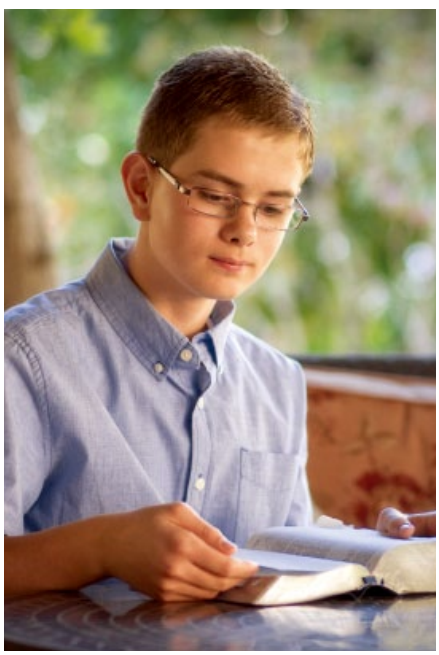
비록 여러분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진실한 회개를 통해 이미 깨끗하게 되었거나 다시금 깨끗하고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삽화: 출판 서비스 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데이빗 린즐리

아직 충분히 더 회개를 할 필요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시입니다! 부디, 부디, 부디 회개의 날을 차일피일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를 했고, 또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이들, 그리고 자신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맞는지 고민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97:8 참조)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벽이 아닌, 깨끗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신께서 다시금 임하시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시기]" (힐라맨서 4:24)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교리와 성약 64:10)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에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성약을 지키며 계명에 순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부디



항상 그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을 대표하기에 정결하고 합당하십시오.

자격 요건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영생의 말씀을 쌓아 둡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쌓아"(교리와 성약 84:85) 두시도록 권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쌓아 두는 일은 공부하거나 외우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니파이후서 31:20; 또한 니파이후서 32:3 참조) 것이 단순한 시식이나 간식거리를 먹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쌓아 둔다는 말에서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 탐구하고 열중하는 것, 숙고하고 기도하는 것, 적용하고 배우는 것, 가치를 알고 감사히 여기는 것, 즐거워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인 암몬, 아론, 옴너, 힘나이, 이 네 명의 훌륭한 선교사가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앨마서 17:2)기 때문입니다.

이 용감한 선교사들은 진실로 영생의 말씀을 끊임없이 쌓아 두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개인 및 동반자 경전 학습 시간을 무시하거나 단순히 훑어보는 시늉을 하며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이해력은 그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고, 복음 교리와 원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그들의 마음에 진리로서 확인되었습니다.

구주의 대표자로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열심히 일하며 회복된 복음, 특히 몰몬경에 나오는 기본 교리 및 원리를 마음과 생각에 심는 일을 계속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되는 축복은, 바로 성신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요한복음 14:26) 하시어 우리가 가르치고 간증할 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은 우리가 영이 작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때에만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것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앨마서 31:5 참조)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끊임없이 영생의 말씀을 쌓아

두며, 말씀의 힘에 의지하며, 그들 안에 말씀의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분을 대표하기에 합당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쌓아 두고,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하십시오.

자격 요건 4: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성신이 궁극적인, 진정한 교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신께서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시며, 모든 진리에 대해 증거하시고, 궁극적인 진정한 교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토론과 나누는 간증은 구도자가 스스로 행하고 배울 준비가 되게 합니다.

선교사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구도자들에게 도덕적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구주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 몰몬경에 대해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영적인 결심을 하고 지키는 것은 구도자가 신앙을 행사하고, 행동하며, 변화하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와는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는 구도자들의 마음에 진리를 밀어 넣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는 노력은 사실 진리를 마음*에* 전해 주는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니파이후서 33:1 참조) 궁극적으로, 구도자는 의롭게 생활하고, 이로써 진리를 자신의 마음 *속에*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개종자와 진리를 찾는 진실한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찾을 영적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구도자가 신앙으로, 또 성신의 권능으로 배우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므로, 이 사업은 절대로 저나 여러분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성신께서 그분의 신성한 역할과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비켜" 드려야 합니다. 사실, 구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나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 또는 우리의 태도나 용모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우리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면이 나타날 때, 그러한 행위 일체는 사제술의 한 형태이며, 이는 성신께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파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50:17~18)

부디 항상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대표하기에 합당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쌓아 두고, 궁극적이고 진정한 교사이신 성신께서 모든 진리에 대해 증거하실 수 있게 하십시오.

자격 요건 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말하고 알려 주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임을 이해합니다.

구주께서는 감람 산에서 앉으셨을 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마가복음 13:11)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구주께서는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셨습니다.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니"(교리와 성약 33:8, 10), "이 백성에게 너희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너희 마음에 넣어줄 생각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00:5~6).

이러한 경전 구절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구도자들이 진리를 배우도록 돕기 위한 가장 벅차고도 엄격한 방식을 강조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우리가 토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복음 주제에 관한 메시지를 단순히 암송하거나 외워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해 보도록 권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알려 주는 것만으로는 가르친다고 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하는 것의 선행 조건으로서 관찰하고, 경청하고, 분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네 가지 절차의 순서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디 적극적인 관찰과 경청이 분별에 앞서고, 관찰하고, 경청하고, 분별하는 것이 말하는 행위에 선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은 선교사가 구도자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경청하고, 분별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교리와 성약 84:85)을 받게 됩니다. 즉, 구도자의 특정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리를 강조하고 대답을 해 주게 됩니다. 오직 관찰하고, 경청하며,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봉사하는 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것은 분별력이라는 영적인 은사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분별이란 영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 다시 말해 어떤 관념이 그릇됨을, 타인에게서 선함을, 구도자를 돕는 데 필요한 다음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영적인 귀로 듣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 다시 말해 한 마디 말이나 질문에 들어 있는 미처 말하지 못한 염려를, 간증이나 교리의 참됨이나 성신의 권능으로 오는 확신과 평안을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따르는 선교사는 신앙으로 행하며 구도자가 진리를 배우도록 돕는 일에서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부탁하건대 항상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대표하기에 합당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쌓아 두십시오. 성신께서 모든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를 찾는 진실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할 때, 관찰하고 경청하고 분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다들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잠깐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악수를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서서 여러분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표하고 또 섬기는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함께하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부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과 그분의 힘 안에서,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자신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려 노력할 때 주님의 음성과 인도를 인식하며 신앙으로 그에 응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강력하고 유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실 것입니다. ■

2011년 6월 24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1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42쪽.

그냥 웃으면서 거절하십시오

하젤 마리 티뷸

어느 여름날, 나는 필리핀 비콜에 있는 어느 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바다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하지만 밤은 싫었다. 밤이 되면 캠프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파티를 벌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파티 초청이 잦았고 가지 않는 것은 실례되는 일이라 동료 인턴들과 나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다.

맨 처음 열린 파티는 신입 인턴 사원들을 위한 환영 파티였다. 나는 거기에 가는 게 두려웠다. 분명 술을 권유할 텐데, 나는 거절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나는 고향 와드에 있는 한 친구에게 전화했고, 친구의 몇 가지 근사한 충고를 듣고서는 자신감이 생겼다.

파티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우리에게 술을 권했으나 다행히 강제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 동료 인턴 직원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내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술 권유를 거절하는 것은 쉬워졌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날 파티에 참석했을 때 회사 사장님이 오셨다. 그분은 코코넛으로 만든 필리핀 토속주인 *람바녹* 한 병을 갖고 오셨다. 나는 그분이 오시자마자 그 람바녹을 술잔에 붓고 계신 것을 보았다. 사장님은 술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인턴 사원 중 한 명에게 술잔을 건네셨다. 그 사원은 금세 잔을 비웠다.

내 가슴이 마구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곧 내 차례가 될 텐데. 나는 마음속으로 '난 마시지 않을 거야. 마시지 않을 거라고.'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사장님이 내게 술잔을 건네셨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동료 인턴 사원들은 고개를 돌려 나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나는 사장님께 웃으면서 겸손하게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여태껏 술을 거절해 왔지만
지금 내게 술잔을 건네는 사람은
회사 사장님이었다.

나는 사장님이 실망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사장님은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고 물으셨다. "저는 몰몬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그런 종교는 처음 들어 보는 걸. 음식 이름처럼 들리는군." 하고 말씀하셨다. 모두가 웃음을 터트렸다.

나 역시 웃었지만 사장님의 농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내게 술을 권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조롱은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내 친구들조차도 그랬다. 한 친구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며, 교회 신자라고 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 시기에 나는 교회 회원들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 섬에서 지내면서 나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배웠다. 나는 조롱이 절대 멈추지 않겠지만, 주님의 영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배웠다. ■

글쓴이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산다.

삽화: 수디 맥콜란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강하고, 건강하며, 똑똑해지십시오

더 좋은 기분을 느끼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자신감을 갖고 싶습니까?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운동에 관해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복을 입고 '그냥 이걸 입고 나가서 산책하다가 기분이 좋으면 조깅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자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운동을 잘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계획을 생각하면 좋은 운동 습관을 기르고 신체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운동이 여러분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지능까지 축복해 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좀 더 몸을 강건하게 하고 싶다는 바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깨어 있고 안전함을 느끼는, 활기찬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벌레와 자기 깃털을 맞교환하기 시작한 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먹이를 찾기는 쉬웠고, 그 새는 자신에게 깃털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깃털을 뽑아 주고 먹이를 받은 새는 일찍 일어나 벌레를 찾을 필요가 없는 생활 방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새는 둥지에 하루 종일 앉아서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새는 이런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고 중요한 깃털을 죄다 잃어버려서 더는 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나쁜 습관, 게으른 일상, 중독 물질을 사용하는 덫에 빠진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복지에 해를 끼[치며]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1]한다고 나옵니다. 활기 있게 생활하고 좋은 식습관을 기르면 이런 나쁜 습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새가 계속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았더라면 깃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육을 사용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성향을 극복할 능력이 발전합니다.

신체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서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으며 때로 우리는 불안감, 우울증, 자존감의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돌볼 때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적, 육체적, 영적인 면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서적 건강 역시 중요하며,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신체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망감과 이따금 느끼는 슬픔은 필멸의 삶을 채우는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슬픔, 절망감, 불안 혹은 우울함이 오래 지속된다면 부모님과 감독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2]

우리 주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은 왜 더 활기가 넘치고 유쾌할까요? 한 가지 주요한 이유는 습관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몸을 생각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성스럽게 지킬 것입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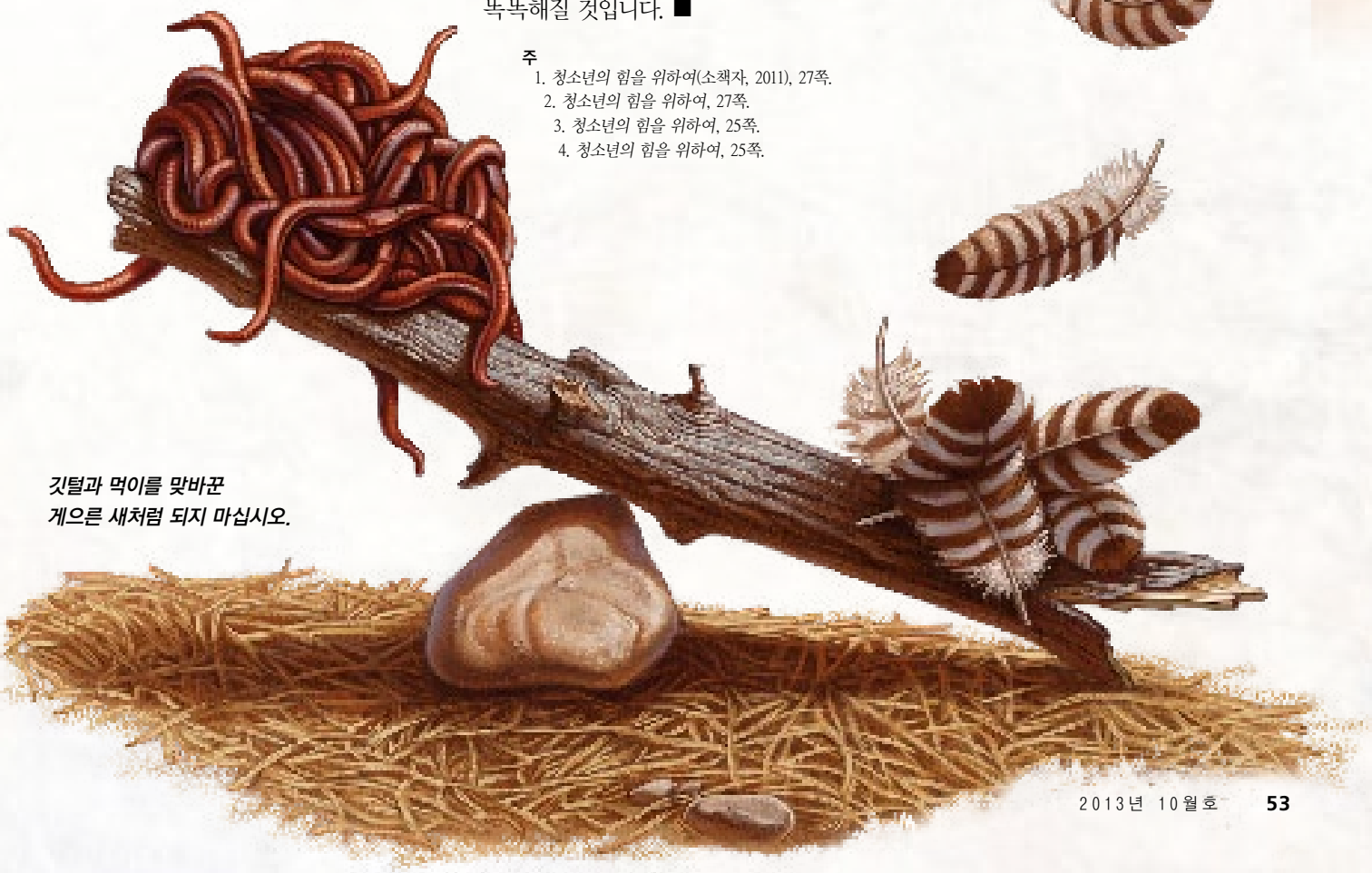
저에게 *성스럽다*는 말은 깨끗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몸을 성스럽게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해로운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기민한 정신, 성신의 인도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지혜의 말씀을 어기면 더 행복해지거나 인기를 얻거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십시오."[4] 지혜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교리와 성약 89:19)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을 부려 깃털과 먹이를 맞바꾼 새가 되는 대신 운동화를 신고 활기차게 생활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좋아하는 운동 동아리에 가입해서 함께 달릴 수 있고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친구를 사귀십시오. 운동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게 됩니다. 운동은 정서적인 건강 역시 강화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고 강건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임을 기억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운동할 때 더 행복해질 뿐 아니라 더 강하고 건강하며 똑똑해질 것입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7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7쪽.
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5쪽.
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5쪽.



깃털과 먹이를 맞바꾼 게으른 새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림: 뉴 디렉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구주처럼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평생이 걸리는 일이다. 여러분은 매일 조금씩 그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

멀리사 젠테노
교회 잡지

경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 행[하라]"(요한1서 2:6)고 권한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나 어떻게 시작할지 모른다면 더욱 그렇다.

여러분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지도서를 전임 선교사용 지침서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지도서는 구주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이다. 6장은 여러분이 구주와 같은 구체적인 성품 아홉 가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마련되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와 경전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126쪽) 6장 맨 끝에 있는 성품 활동을 펴 본다. 이 활동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성품이 영적으로 강하며 또 어떤 성품을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이 활동을 끝낸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

러분이 집중해야 할 성품 한 가지를 선택한다. 그 성품에 관해 6장에 나오는 해당 부분을 읽는다.

- 이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정한다. 그런 후 발전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자애를 발전시키려 한다면 일주일 동안 매일 세 번씩 형제자매에게 긍정적인 것을 말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 주 끝에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고 계속해서 향상되도록 필요한 수정을 한다.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각 성품에 관해 공부할 수 있는 경전 구절이 나와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거된 성구를 공부하고 그 성구를 읽으면서 받은 느낌을 적는다.
-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한다. “제 형제자매가 제 것을 가져갈 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처럼 구체적인 도움을 간구한다.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주님의 응답을 인식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평생 추구해야 하는 일이다. 때때로 그 일은 고급물리학보다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빛과 진리를 받고 공부하고 적용하며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찾아올 것이다. ■

매일 하는 일

매일 하는 작은 노력은 우리 구주처럼 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활동들을 추가로 해 보는 것도 좋다.

- 경전 안내서에서 여러분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성품과 관련된 성구를 읽는다.
- 변화하겠다는 소망과 발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한다.
- 진척 사항을 일지에 기록한다.
-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부모님께 목표를 말씀드려 도움을 받는다.

한 마리를 찾으라, 리즈 레먼 스완슨. 복사 금지; 사진 삽화 © SHAYLA MARIE FURSOV; 배경 © ISTOCK/THINKSTOCK; 장식 무늬 © HEMERA/THINKSTOCK

일요일 공과

이번 달 주제: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십시오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10월 동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법에 관해 공부하게 됩니다.(와드나 지부에서 새로운 공과를 모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 기사를 읽은 후 이번 주, 혹은 이번 달에 노력해 볼 성품 한 가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목표를 정한 후 발전 상태를 평가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더 자애로워졌거나 더 순종적이거나 더 인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겠다는 목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청소년, 혹은 가족들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일부 교회 회원들은 왜 표준대로 생활하지 않느냐고 묻는 비회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모든 교회 회원이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살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기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실히 복음대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우리 각자의 개심한 정도와 간증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시련을 겪으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원과 사람들도 다릅니다.

비회원들은 “개종”이나 “간증” 같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각자가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두가 실수를 저지를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주를 마련하셨습니다.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실수로부터 배우고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갑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표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이해하며, 인내심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인하지는 않지만 죄인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요한복음 8:11 참조) 여전히 회개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경전을 찾아보십시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비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마태복음 7:1 참조)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교회 회원들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디슨 엠(13세), 미국 텍사스

속죄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저는 계명을 따르지 않는 회원들의 결점을 찾기보다는 그 기회를 통해 속죄에 대해 가르친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가 몰몬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이드 에이치(16세), 미국 오리건

교회는 선을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교회 회원들도 시련과 유혹을 겪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참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알고 승영에 이를 수 있게 해 줍니다.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육에 속한

제시된 의견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이며(모사이야서 3:19 참조) 그것은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지 여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비니아 에스(19세), 필리핀 불라칸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마음에 와 닿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한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시기]"(모세서 1:39) 위해 계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준대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표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표준을 주셔서 제가 그분께 다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표준은 그분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모르간 디(18세), 프랑스 랑그도크루시용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방문하세요

우리 표준대로 살지 않는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간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영의 인도를 구하고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안드레아 시(13세), 페루 리마

모범이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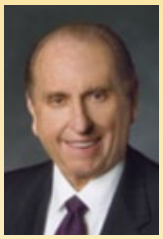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나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사악함과 극악함이 만연합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든 에스(15세), 미국 유타

우리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어느 조직이나 종교에서든 좀 더 헌신하거나 덜 헌신적인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표준대로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메런 에스(16세), 미국 애리조나



사람들을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바라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70쪽

다음 질문

"생각을 다잡으려고 하지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11월 15일까지, 가능하면 고화질 사진과 함께 여러분의 대답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거나 우편을 통해 3쪽에 나오는 주소지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돕는 것은 감독님의 부름 중에서도 특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언제 그분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감독님께 무엇을, 왜
고백해야 합니까?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께 고백해야 한다고 배우는데, 여러분은 그 이유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회개라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 아닌가?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왜 굳이 감독님과 이야기해야 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감독님께 고백해야 합니까?

많은 청소년이 부모님이나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쪽을 더 마음 편하게 여깁니다. 부모님과 지도자들이 필요한 도움과 권고를 줄 수 있다 해도 주님은 감독님이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07:72, 74 참조) 그분은 와드 회원의 합당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임받고 의롭게 생활하는 감독님은 여러분을 비롯해 와드 회원들에 관한 성신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부모님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회개 과정을 밟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죄가 매우 심각하다면 감독님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개 과정의 일환으로 한동안 성찬을 취하거나 신권을 행사하는 것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독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도움을 줄 것이며 여러분이 그러한 성스러운 행위를 재기하기에 합당한 시점을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권고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와 같은 교리적 주제를 공부한 후 배운 것을 말해 달라고 권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님은 유혹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분께 말씀드려야 합니까?

여러분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한 일이 감독님께 말씀드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자면 "여러분의 양심이 알려 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즉시 행동하십시오.(앨마서 34:31~34 참조)

회개와 관련해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없나니,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

없음이라."(모사이야서 4:29)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독님께 고백해야 하는 일을 세세히 열거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해 왔음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수를, 어쩌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잘못은 개인 기도와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잘못, 특히 부도덕과 관련한 잘못은 주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 감독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생각하면서 죄책감, 불안감, 불행,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분이 하나라도 든다면 그 잘못에 대해 감독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일을 감독님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워.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여기셨을 텐데. 내가 한 일을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시겠지. 이제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은 친절하게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 후 여러분이 회개 과정을 밟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독님은 주님께서 보내신 자비의 사자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지도록 도우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43)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심판받을 때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 주님께 보고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악한 행위는 그만두지만 감독님에게 절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이따금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구주께서 그 죄의 멍에를 들어올리게 하지 못한 채 죄의 짐을 계속 홀로 져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저녁, 저는 성전 추천서를 갱신하기 위해 성인 몇 명과 접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한 자매님이 접견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성전 결혼을 했고 평생 교회에서 활동 회원으로 지냈습니다.

저는 자매님의 영혼에 큰 슬픔이 깃든 것을 감지했습니다. 접견을 진행하면서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께서 십 대 시절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신권 지도자에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게 그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매님은 곧바로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자매님은 그것이 사실이며, 감독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기가 항상 너무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고백하면서 제가 그분의 합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신권 지도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회개 과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끝냈던 것입니다. 자매님은 불필요하게 죄의 멍에와 슬픔을 30년 넘게 지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 죄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접견한 이후로 가끔씩 그 자매님을 봅니다. 자매님의 표정은 밝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자매님의 성함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감독에게서 그러한 기억들을 지워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신권 지도자에게 고백함으로써 이 중년 자매님은 수년간 느껴 온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느끼지만 감독님께 고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감독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평생 불필요한 멍에를 져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감독님에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멍에를 들어올려 주실 것입니다.(이사야 1:18 참조)

사진 삽화: 크리스티나 스미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희생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하여 또다시 슬픔과 고통받는 일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 네 고난이 극심할까 하노라—얼마나 극심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

그런즉 내가 네게 거듭 명하노니, 회개하라. …… 또 너는 네 죄를 고백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말한 이러한 형벌을 네가 겪을까 하노니"(교리와 성약 19:15~17, 20)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죗값을 이미 치르셨음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건대, 필요하다면 감독님께 고백하는 것을 비롯해, 회개를 통해 여러분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구주의 가능하게 하는 권능인 그분의 자비를 통해 여러분은 미래에 유혹을 극복할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생에서 마음의 화평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며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위대한 치유자

"구주께서는 종종 명의, 즉 위대한 치유자로 불리시는데 …… 우리 몸이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보호책이 통증이라면 우리 영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하는 기제는 죄책감입니다.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죄책감이 사라지게 할 부드러운 위안이 구주의 속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위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지속적인 순종이란 원리를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결과는 양심에 깃드는 평안과 위안이며, 영적인 치유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치유받도록 도울 자격을 갖춘 영적인 명의의 보조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4쪽.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구주를 맞아들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요한계시록 3:20)

어린 시절, 성탄절이 되면 어머니는 문 바깥쪽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구주의 사진을 걸어두셨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가족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며, 저는 언제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집 안에는 누가 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구주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문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집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압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구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는 모두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맞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십 대 시절에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구주를 제 삶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의 봉사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성전에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새벽 4시면 집을 나서셨습니다.

침례받고 2년이 흐른 후, 저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전임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교 임지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구주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그들의 삶 속에 맞아들이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저는 사모아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늘 새로운 선교사들에게 언제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초등회에서 그런 결심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초등회는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배우십시오.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사람들이 구주를 그들의 삶 속에 맞아들이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

삽화: 제니퍼 토먼

새내기

성찬 전달은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실화에 근거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84:35)

벤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하얀 셔츠와 군청색 바지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벤지는 집사로 성임될 준비가 완벽하게 된 듯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벤지는 경전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벤지는 오늘 교회에서 얼마나 낯선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권 의무를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바로 성찬 전달 말입니다. 다음 주에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할 텐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집을 떠날 때 그 생각 역시 잊어 버리려고 애썼습니다.

성찬식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식 후에 벤지는 가족과 함께 살라자 감독님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지금쯤이면 초등회 개회 모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벤지가 앉자 아빠, 감독님, 청남

집사

“집사 ……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신권을 행사한다면, 소년의 신권도 어른들의 신권처럼 강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칠십인, “소년의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4쪽

삽화: 애덤 코포드

회장님, 감독단 보좌들이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빠는 벤지에게 아론 신권을 주셨습니다. 안절부절못하던 벤지는 축복을 받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침착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벤지는 일어나서 모든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그런 후 엄마와 형 제이, 여동생 미래솔을 껴안았습니다.

그런 후에 벤지는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반이 초등회와는 사뭇 달랐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에 관한 공과가 진행되었습니다. 벤지는 예전에 초등회에서 기도에 관한 공과를 많이 들었습니다. 벤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집사가 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끝난 후 제이 형이 벤지에게 말했습니다. “멋진 일이야. 내가 성찬을 축복하면 넌 전달하게 될 거니까.”

그러자 벤지는 다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겠지.” 벤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성찬 전달은 벤지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벤지는 아빠가 소파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지나쳐서 그 사람이 성찬을 들지 못하면 어떡해요?” 벤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발을 헛디디면요?” 성찬기가 쨍그랑 하고 바닥에 떨어지며 물잔이 사방으로 튕겨 나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벤지의 어깨를 꽉 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하던 때가 기억나는구나. 아마 지금의 너보다 훨씬 더 걱정했었던 것 같다.”

벤지는 놀라서 눈을 깜박거렸습니다. “아빠가요? 아빠는 무서운 게 없으시잖아요!”

아빠가 웃으셨습니다. “여러 번 겁을 먹었지.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

벤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도요?”

아빠가 웃으셨습니다. “그렇단다. 기도였어. 네 할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주셨지. 너도 아빠가 축복해 주면 좋겠니?”

벤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빠는 벤지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실 때 벤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축복하시면서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신권을 받았음을 기억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신권을 주셨노라.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할 때 이 일과 다른 모든 것에서 축복받게 될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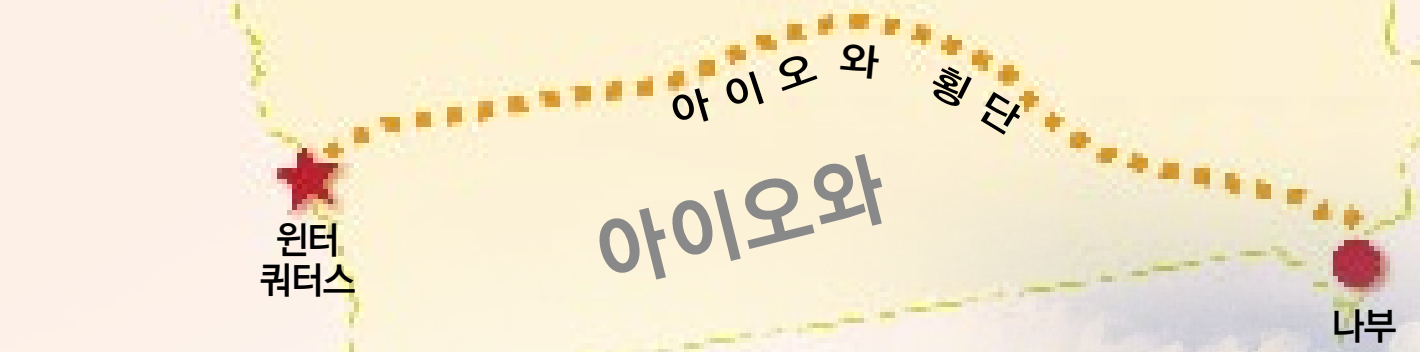
그 주 내내 벤지는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벤지는 예배실 앞에서 다른 집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벤지는 제이 형이 성찬 빵을 축복하는 것을 주의해서 들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벤지가 과연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말입니다! 그때 벤지는 아빠가 축복을 주실 때 받은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영이 벤지에게 임하면서 벤지의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벤지는 성찬기를 들고 자신 있게 자신이 맡은 곳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맨 앞줄에 앉은 자매님께 성찬기를 건넸습니다.

자매님이 벤지를 보고 웃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벤지는 답례로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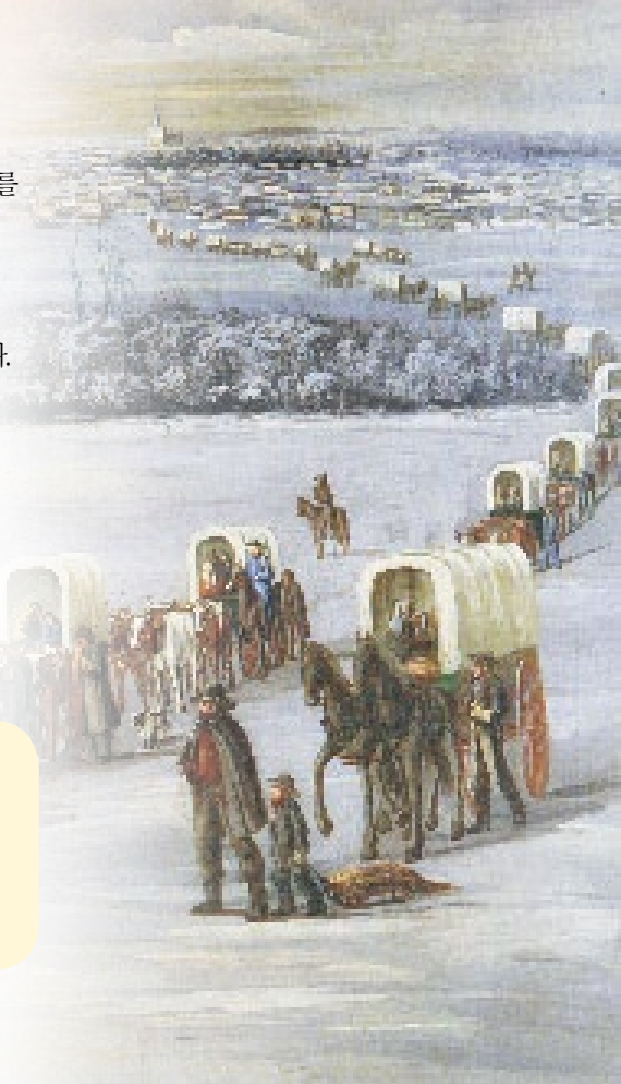
윈터쿼터스에서의 기다림



제니퍼 메디

새로운 도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살해된 후 일리노이 나부는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더 안전한 거처를 찾고자 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1846년 2월, 첫 번째 성도 무리가 서부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으나 악천후와 질병으로 이동은 더뎠습니다. 아이오와를 지날 무렵, 겨울 전에 로키 산맥을 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머물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윈터쿼터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윈터쿼터스에 있는 몰몬 트레일 센터 내부의 이 전시물은 아이오와 주 횡단 여행 중의 야영지를 재연해 놓은 것인데 그곳에서 윌리엄 클레이튼은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를 작사했습니다.

협동

성도들은 통나무나 잔디로 집을 지었습니다. 천막과 동굴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춥고 긴 겨울 동안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음악회를 열고 노래와 춤을 즐겼습니다. 제분소와 마을 회관, 바구니 공장도 지었습니다.

전진

성도들은 윈터쿼터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개척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시온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리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봄이 되자 첫 번째 개척자 무리가 윈터쿼터스를 떠나 솔트레이크밸리를 향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윈터쿼터스에서 아름다운 네브래스카 윈터쿼터스 성전을 볼 수 있으며, 몰몬 트레일 센터를 방문해 개척자들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성도들이 서부로 이동하면서 어떤 종류의 물품들을 가져갔는지 몰몬 트레일 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밀가루, 양념, 쌀, 콩, 젖소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윈터쿼터스에서 지내는 동안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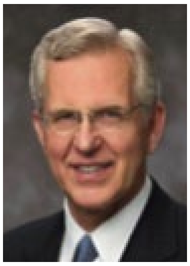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 성도들, 그랜트 통나 클로슨© IRI; 사진: 제니퍼 메디; 웰트 시 앤더슨

성도들이 윈터쿼터스에서 멈추다

아리 반 데 그라프

개척자들은 서부 이동을 계속하기에 앞서 겨울을 나기 위해 한동안 윈터쿼터스에 정착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삽화: 아리 반 데 그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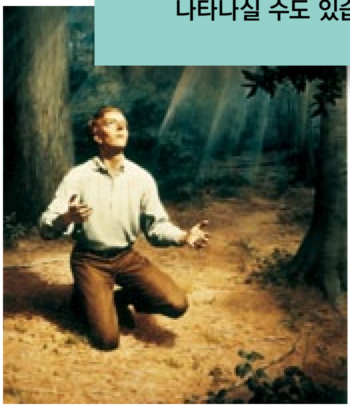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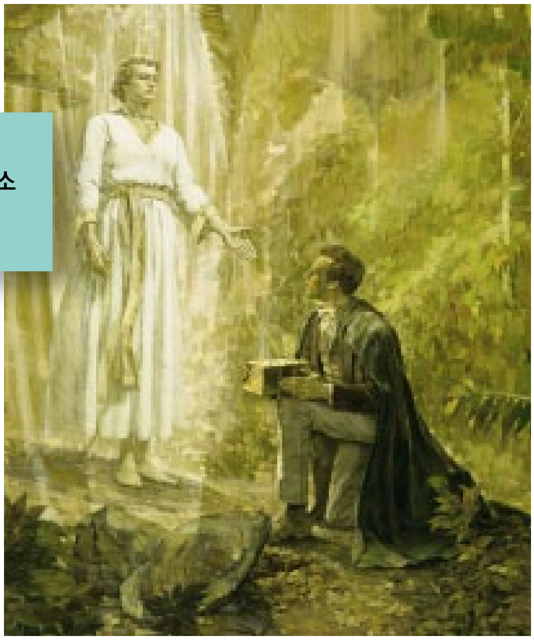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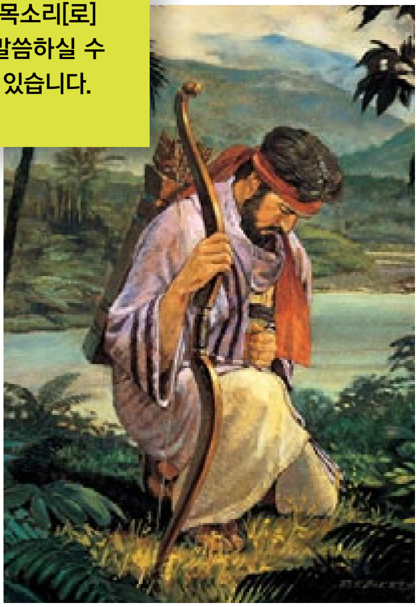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구주께서 사자를 보내시거나 몸소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음성이나 성령의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종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하시거나 종들이 하는 평의회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발췌,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6~90쪽

왼쪽부터: *첫번째 시현*, 존 스콧© IRI; *금판을 받는 조셉 스미스*, 케네스 라일리 © IRI; 사진: 데이비드 윌리엄 뉴먼 © IRI; 사진: BUSATH PHOTOGRAPHY; *기도하는 이노스*, 로버트 티 버렛 © IRI

바이올렛이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도 어떻게 에머는 바이올렛에게 친절할 수 있었을까요?

바이올렛

샬롯 매이 쉐퍼드
실화에 근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31)

에머는 새 교실로 들어서면서 책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등교 첫날이었습니다. 에머는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었고 엄마는 특별히 동물 모양 과자를 간식으로 싸 주셨습니다.

에머는 '오늘은 멋진 날이 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이올렛만 없다면 말이지.'

에머는 멈춰 서서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저쪽에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바이올렛.

작년에 바이올렛은 쉬는 시간이면 정글짐을 독차지하고 놀았습니다. 에머에게 욕도 했습니다. 에머의 단짝 친구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역시 에머를 본 바이올렛은 혀를 쑥 내밀었습니다. 에머는 더욱 힘주어 책가방을 꼭 움켜쥐고는 바이올렛을 쏘아보았습니다. 바이올렛은 작년 내내 에머를 심술궂게 대했는데, 올해에도 그다지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 학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교실 앞에 서신 콜드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정할게요."

책상은 두 사람씩 앉도록 놓여 있었습니다. 콜드웰 선생님은 출석부를 훑어보시다가 뒷열에 있는 책상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머. 저기 뒤에 앉거라."

에머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에머는 리즐리가 옆에 앉기를 바랐습니다. 아니면 제이미도 좋았습니다. 아니면…….

"바이올렛."

에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콜드웰 선생님은 에머의 옆자리를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바이올렛, 에머와 함께 앉으렴."

바이올렛은 인상을 쓰며 에머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에머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시간, 콜드웰 선생님은 칠판에 몇 문제를 쓰시고 학생들에게 풀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혼자서 풀거나 짝이랑 같이 풀어 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머는 재빨리 공책 위로 몸을 구부리며 바쁜 척했습니다. 문제는 꽤 쉬웠습니다. 에머는 그저 바이올렛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내내 바이올렛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에머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연필 같았습니다. 에머는 무시했습니다.

또 다시 찔렀습니다. 에머를 찌른 사람은 바이올렛이었습니다! 에머는 꿈쩍도 하지 않고 문제만 풀었습니다.

바이올렛이 세 번째로 찔렀을 때는 너무 아팠습니다. 에머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일년 내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손을 들고 선생님께 이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이올렛을 때려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순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기

누가 울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 연필로 또 찔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이올렛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필을 쥐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바이올렛의 공책은 지우개로 지운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손으로 연필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줄래?" 바이올렛은 기어드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에머는 놀라서 바이올렛을 한동안 쳐다봤습니다. 바이올렛이 도와달라고 말하다니! 언제나 그렇게 심술궂었으면서? 에머는 다시 공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혼자서 풀 수 있을 거야. 얘는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리 …… 내 짝이라 하더라도.

에머는 가만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에머는 바이올렛이 옆에서 소리 죽여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경전에 나오지만 바이올렛은 달랐습니다! 어쩌다 교실에서 옆에 앉게 되었을 뿐입니다!

에머는 다시 문제 풀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멈추었습니다. 어쩌면 바이올렛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아무리 심술궂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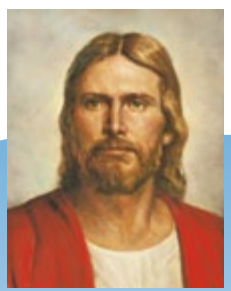
에머는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에머는 바이올렛을 향해 돌아앉으며 웃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도와줄까?" 에머가 물었습니다.

바이올렛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머는 바이올렛 쪽으로 몸을 기울여 첫 번째 문제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가슴 속에서 따뜻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바이올렛이 동물 모양 과자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

삽화: 브래드 티어; 주 예수 그리스도, 멜 파슨© IRI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경전에서 예수님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못되게 굴어도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왼쪽 삽화: 마크 자먼, 오른쪽,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삽화: 짐 매드슨, 제러드 벡스트랜드, 에릭 바클레이, 셀레스터 스미스

정말 맛있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먹어 보게 하고 싶은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있나요? 선지자 리하이는 맛있는 열매를 먹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정말 맛있어서 "[그]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니파이전서 8:12) 줄 정도였습니다. 리하이는 그 맛있는 열매를 가족들에게도 맛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리하이의 꿈 속에 나타난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리하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족들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리하이는 복음으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족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나눕니다.

여덟 살인 마리아는 에콰도르의 거리에서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들이 마리아의 집으로 와서 가족을 가르쳤습니다. 가족 중에 처음으로 침례 받은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가족 모두가 마침내 교회에 들어오자 매우 행복했습니다.

아홉 살인 에릭은 초등회 성찬식 발표가 무척 기대되었고, 이웃들을 그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두 어린이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뭔가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나눌 때 간증이 커질 것입니다. 리하이처럼 "심히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

전도 카드

전도 카드를 나눠 줌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다음 쪽에 있는 카드를 풀로 붙이세요. 그런 후 카드를 잘라 내고 반대편에다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보세요.

노래와 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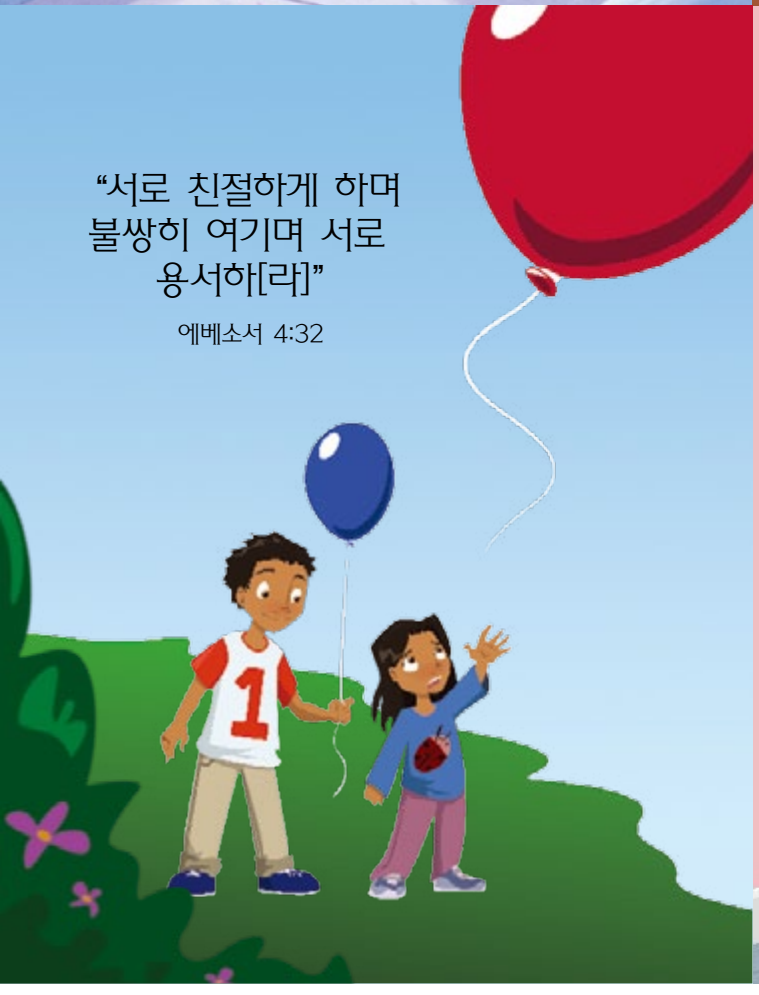
-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어린이 노래책*, 92~93쪽
- 마태복음 5:16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 모두에게 각기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림 뒷면에다 복음을 통해 자신의 삶에 어떤 축복이 왔는지 적게 합니다. 그런 후 복음을 친구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창세기 26:24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9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 4:32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뉴욕시티에 사는 카밀

아홉 살인 카밀은 친구가 많습니다. 카밀은 "친구들이 모두 다르다는 게 정말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요." 카밀은 친구들의 훌륭한 점을 배우는 것과 친구와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카밀이 친구와 나눈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친구인 예일린에게 신앙개조 제1조를 알려 준 후 카밀은 예일린의 가족에게 선교사와 만나 보도록 권했습니다. 카밀은 예일린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예일린과 예일린의 어머니는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 예일린은 2011년에 침례 받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예일린이 신앙개조를 암기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9조를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난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은 영원해"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은 교리와 성약 19편 23절입니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슬플 때 언제나 이 구절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 부모님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세요. 그래서 제가 쌀, 콩, 닭고기를 제일 좋아하나 봐요.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족이 어디서 왔는지 떠올리게 돼요.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이에요. 여동생 에밀리는 12월에 침례와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오빠의 이름은 아빠 이름을 따서 빅터라고 지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애완동물이 없지만 거북이를 키울까 생각 중이에요. 거북이가 귀엽고 느릿느릿해서 도망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몰몬경에서 모로나이 대장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아빠가 그 이야기를 가정의 밤 때 읽어 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의 깃발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제 깃발은 제가 누구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가족 사진 제공. 별도로 명시한 것 제외: 자유의 여신상 사진 © GETTY IMAGES; *COME FORTH*, 윌터 레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우리들 이야기

부모님은 제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어렸을 때부터 제게 선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이를 위한 경전 이야기로 글자를 배웠고, 몰몬경을 사랑합니다. 저는 매일 혼자서, 또 가족과 함께 몰몬경을 읽습니다. 제가 몰몬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암몬입니다. 암몬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에스테반 엠(8세), 콜롬비아

어머니의 고향인 파나마로 가족 휴가를 갔을 때, 부모님은 어린 여동생인 이홀리베스와 저를 데리고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성전 벽을 만져 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성전에 있었을 때 정말 행복했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제가 성신을 느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르지오 비 주니어(7세), 미국 플로리다

파샤 지(9세), 우크라이나

브라질 쿠리티바 성전은 레티시아 시(6세)가 세 살일 때 완공되었습니다. 레티시아는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일반 공개 마지막 주에는 매일 성전에 갈 정도였습니다. 레티시아는 여전히 성전에 가서 아름다운 정원을 거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레티시아는 그림 그리기와 수영을 좋아합니다.

초등회: 예수님을 따르라

이탈리아에 사는 마우리지오 디(11세)는 성찬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우리지오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는 즐겁고 재미있으며 매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마우리지오는 교회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며, 친구도 많습니다.

멕시코 티후아나 성전의 기공식에 참석하려고 준비할 때 우리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부지를 청소했습니다. 저는 성전이 완공되면 주님께서 그분의 집으로 오시리란 걸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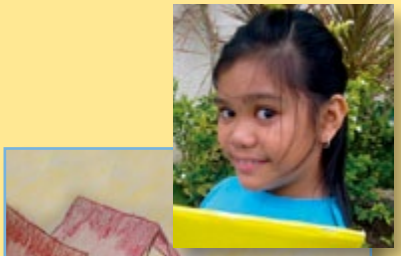
지저스 에스(6세), 멕시코

경전을 공부하면 옳은 것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판", 피 투옛호아(10세), 캄보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엔 티 린다(8세), 캄보디아



몰몬경에서 저는 니파이 이야기와 바다를 건너는 여정 이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켈리 시(10세), 필리핀

우리가 영원히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인봉되어야 합니다.

쉐나 시(8세), 필리핀

저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집에서는 경전 이야기를 읽고 배우기, 찬송가 부르기, 가정의 밤 활동 하는 것을 좋아하죠. 복음은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며 제게는 행복이랍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 세 분과 제일 친한 친구인 미구엘에게 몰몬경을 주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등회 노래는 "우리들은 니파이처럼"(어린이 노래책, 92~93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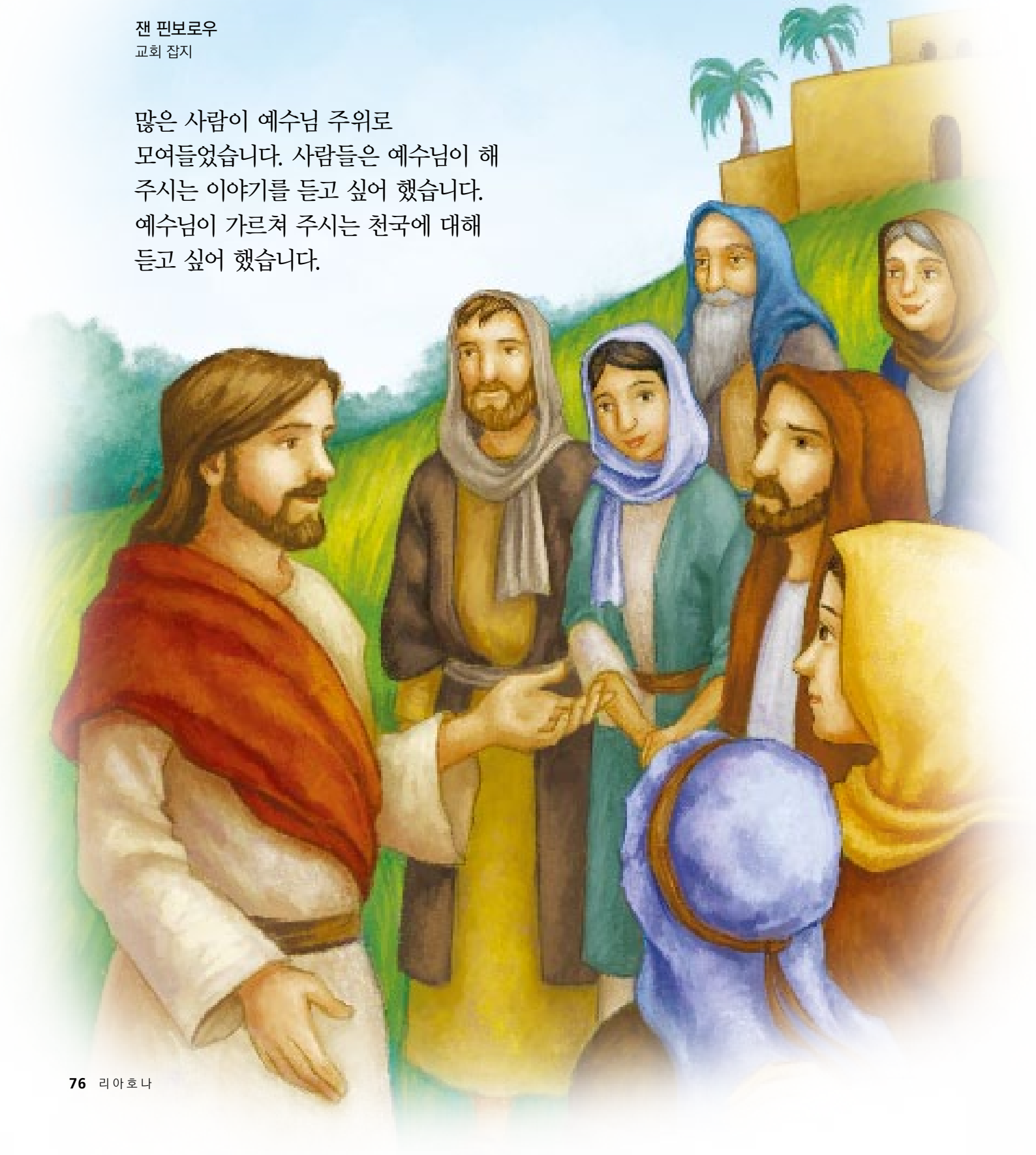
마팀 피(6세), 포르투갈

헨리케 에스(7세), 브라질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잰 핀보로우
교회 잡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플 때 고쳐 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럴 시간이 없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삽화: 소냐 제이 시 테니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이 그분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왕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떻게 생겼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10:13~16

색 칠 하 기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가복음 10:16)

삽화: 재러드 벡스트랜드

욕설

알 발 존슨
교회 잡지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충격! 경악! 실망감! 어머니의 눈에 이런 감정이 차례로 스쳐가더니 마침내 하나의 감정으로 귀결되었다. 바로 배신감이었다!

지난 15년간 하나님 아버지를 언행으로 공경하라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기에, 나는 불쾌한 어떤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고는 죄책감을 느끼며 서 있었다.

욕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해 여름, 유타 야생동물 보호부(Fish and Game Department)에서 일할 때 함께 일한 다른 소년들에게서 욕을 배우면서 욕하는 습관이 생긴 모양이다.

우리가 하는 주된 일은 국도변에 자라는 엉컹퀴를 잘라 내는 일이었다. 우리는 곧 엉컹퀴가 특히 나쁜 잡초라고 생각했다. 엉컹퀴는 아무 곳에서나 마구 자라며 다른 식물들을 몰아냈다. 엉컹퀴 가시는 무엇이든 가까이 다가오면 들러붙었다.

손에 삽을 들고 우리는 여름 내내 이 악마 같은 식물과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했고 그러다 보니 욕설이 입에 붙어 버렸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의 말이 듣기 거북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잠자코 있었다. 그러다 결국 나까지 그런 말을 쓰게 된 것이다. 여름이 끝날 무렵, 마치 엉컹퀴 가시가 개털에 단단히 달라붙듯 욕설이 입에 배고 말았다.

하지만 나의 욕설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나는 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마치 엉컹퀴 가시가 개털에 단단히 달라붙듯 욕설이 입에 배고 말았다.

쉽지는 않았다. 욕설은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고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는 대화, 읽는 글, 보는 이미지 모두가 우리 생각을 형성한다. 나는 곧 쓰는 말을 바꾸려면 머릿속에 무엇을 넣을지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나는 교회와 세미나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다. 욕설은 더 고귀한 생각들을 몰아냈지만, 내가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환경에 계속 있었더니, 다시 그 고귀한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 나는 어두운 생각을 다시 불러오는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멀리했다.

점차 내가 쓰는 말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 해 말쯤에는 욕하는 버릇을 완전히 고쳤다.

그 경험으로 나는 말의 힘에 대해 많이 배웠다. 말은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도 있다. 상처를 주거나 치유할 수도 있다. 또한 사람들을 모욕할 수도 있고,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구주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칭하신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요한복음 1:1~4,교리와 성약 93:6~11) 참조)

결론은 이것이다. 우리의 말이 주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할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이신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 ■

삽화: 로버트 티 버렛

삽화: 로버트 티 버렛

데이비드 오 맥케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유타 헌츠빌의 **가족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동물을 좋아했고 평생 **말**을 키웠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당시에 발견한 다음 **격언**은 그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라." 그는 또 다시 영국을 여러 번 방문했고, 1958년에는 **영국 런던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지도자로서 청소년들이 수개월 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첫 단계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전 성약”, 18쪽 참조. 본 기사는 다른 기사와 더불어 회원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4 02107 90320 6
10790 320